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한국 코미디 영화 속 여성 캐릭터 구현

-영화 '미쓰 홍당무'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이정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최민선

## 한국 코미디 영화 속 여성 캐릭터 구현

-영화 '미쓰 홍당무'를 중심으로-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comedy film Women  
in character

-The movie miss blush-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이정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최민선

## 한국 코미디 영화 속 여성 캐릭터 구현

-영화 '미쓰 홍당무'를 중심으로-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comedy film Women  
in character

-The movie miss blush-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이정희

이정희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 국 문 초 록

## 한국 코미디 영화 속 여성 캐릭터 구현 -영화 '미쓰 홍당무'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이 정 희

정보 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다양한 미디어가 보급되면서 시각적 이미지가 매우 중요해져 가고 있으며 다양해진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캐릭터 이미지 또한 다양해져 가고 있으며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법 또한 다양해져 가고 있다. 다양한 정보매체 중에서도 영상 예술의 대중화를 이룬 영화는 영화적 재현 장치들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들을 대중에게 소개 시켜 왔다. 영상 이미지로 만들어 전달하는 시각 예술의 종합적 완성 형태를 말하기도 한다.

영화 전체의 이야기의 흐름을 끌고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를 장르적 특성에 따라 가시화시키기 위한 요소로 분장, 헤어, 의상 역시 다양해져 가고 있다. 이를 통한 캐릭터 표현은 시내나 사회, 문화, 배경 등을 알 수 있으며, 성격 및 직업, 경제적 여건, 시대, 연령까지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다양한 캐릭터들을 구현하고 있다.

게다가 영화의 변천과 함께 발전하는 각종 기술적인 작업에 의해 무한한 영화적 상상력을 통한 환상적인 화면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다양한 영화 속 캐릭터들 중에서도 한국 코미디 장르 속 여성캐릭터를 표현한 사례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영화적 특성과 한

국 영화 장르로써 코미디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고 영화 속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요소에 대해 살펴 본 후 한국 코미디 장르 영화중에서도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인 영화 사례를 통해 외형적 요소를 통한 캐릭터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자가 직접 분장에 참여한 영화 ‘미쓰 홍당무’를 중심으로 등장하는 주요 여성 캐릭터를 연구 분석 하였으며 영화 ‘씨니’ 와 ‘미녀는 괴로워’를 비교 분석 하여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외형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외형적인 요소를 크게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으로 정해 놓고 이 세 가지 요소가 각 영화 속 캐릭터들에게 주어짐으로써 캐릭터의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고 어떠한 방법들로 표현되는지 살펴보자 하였다.

그 결과 영화 ‘미쓰 홍당무’를 분석을 통해 각 캐릭터마다의 성격을 외형적인 요소인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의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정확한 성격 분석을 통해 실제로 볼 수 있고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캐릭터를 완성했다는 결론을 유추해 낼 수 있었으며 이렇게 묘사된 캐릭터는 관객들로부터 극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낼 수 있었다.

두 번째 영화 ‘씨니’의 주인공들 중 상대적인 성격을 엿 볼 수 있는 두 캐릭터를 통해 내면적으로 대조적인 성격이 외형적으로 표현되는 사례를 통해 각 각의 요소마다 차이를 둘으로써 캐릭터를 표현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유추해 낼 수 있었으며 상황설정과 영화적 흐름을 위해 현실적인 리얼리티를 배제하고 영화적 리얼리티로 상황을 부여함으로써 캐릭터를 완성 할 수 있다는 결과도 유추해 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화 ‘미녀는 괴로워’ 속 여주인공 ‘강한나’를 통해 외모가 변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외형적인 요소인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결론을 유추해 낼 수 있었다.

### 【주요어】 여성 캐릭터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1) 연구 방법 .....	3
2) 연구 범위 .....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	5
제 1 절 영화의 이론적 고찰 .....	5
1) 영화의 특성 .....	5
2) 영화 장르로써 코미디의 특성 .....	9
3) 캐릭터 개념 및 특성 .....	17
제 2 절 문장의 이론적 고찰 .....	20
1) 문장의 개념 .....	20
2) 영상 문장의 종류 및 특성 .....	23
제 3 절 영화 속 캐릭터를 만드는 요소 .....	26
1) 메이크업 .....	26
2) 헤어스타일 .....	29
3) 의상 .....	30
제 3 장 “미쓰 홍당무”의 캐릭터 표현 .....	32
제 1 절 작품 개요 .....	32
제 2 절 캐릭터 분석 .....	34
제 3 절 캐릭터 표현 .....	37

1) 메이크업에 의한 캐릭터 표현 .....	37
2) 헤어에 의한 캐릭터 표현 .....	46
3) 의상에 의한 캐릭터 표현 .....	53
제 4 장 유사장르 속 캐릭터 표현 사례 .....	59
제 1 절 영화 “써니” 속 임나미와 하춘화 캐릭터 표현 .....	59
제 2 절 영화 “미녀는 괴로워” 속 강한나 캐릭터 표현 .....	66
제 5 장 결 론 .....	73
【참고문헌】 .....	79
ABSTRACT .....	88

## 【 표 목 차 】

[표1]	양미숙의 평상시 스트레이트 메이크업 .....	39
[표2]	양미숙의 안면 홍조 증 분장 단계 .....	40
[표3]	양미숙의 초췌한 메이크업 .....	42
[표4]	서종희 평상시 메이크업 .....	43
[표5]	서종희의 초췌한 메이크업 .....	44
[표6]	이유리의 평상시 메이크업 .....	45
[표7]	성은교 평상시 메이크업 .....	47
[표8]	양미숙의 헤어스타일 기본 콘셉트 .....	49
[표9]	상황에 따른 양미숙의 헤어스타일 변화 .....	51
[표10]	서종희 캐릭터의 기본 헤어스타일 .....	53
[표11]	상황에 따른 서종희 헤어스타일 .....	53
[표12]	이유리 헤어스타일의 변화 .....	54
[표13]	성은교의 헤어스타일 .....	55
[표14]	10년 전 양미숙의 의상 .....	57
[표15]	폐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양미숙의 의상스타일 .....	58
[표16]	미숙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는 의상 .....	59
[표17]	종희가 착용한 의상 .....	61
[표18]	의상컬러를 통한 이유리 캐릭터 이미지 표현 .....	62
[표19]	소재와 스타일에 따른 이유리 캐릭터 이미지 표현 .....	61
[표20]	성은교의 의상 스타일 .....	64
[표21]	임나미의 과거와 현재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	68
[표22]	임나미의 과거와 현재 의상을 통한 캐릭터 표현 요소 .....	69
[표23]	하춘화의 과거와 현재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	71
[표24]	하춘화의 과거와 현재 의상을 통한 캐릭터 표현 .....	72
[표24]	성현 전 강한나의 평상시와 가수로써 캐릭터 표현의 차이...	76
[표25]	성형 후 제니의 가수 데뷔 전과 후 캐릭터 표현의 차이 .....	78

## 【 그 립 목 차 】

<그림1> 남자와 기생 .....	13
<그림2> 염통에 털 난 사나이 .....	13
<그림3> 변강쇠 .....	13
<그림4> 개그맨 .....	13
<그림5>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영화 .....	15
<그림6> 블랙코미디 장르의 영화 .....	16
<그림7> 개그코미디 장르의 영화 .....	16
<그림8> 섹스 코미디 장르의 영화 .....	17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 목적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는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다양한 미디어가 보급되면서 서로 다른 개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TV 프로그램을 통한 전국적인 공개 오디션이 다양한 형태로 늘었고 대중들 개개인은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직업군 속 자신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개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TV나 영화 등 다양한 매체들 속에서 보여 지는 다양한 생활방식과 패션의 유행 등이 개개인에게 전이되면서 시각적 이미지가 매우 중요해져 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또한 다양해져 가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 매체 속 한 캐릭터로써 착용하고 나온 액세서리나 의류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웹상에서 블로거 들을 통해 전파되고 또는 트위터나 페이스 북 같은 개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개개인이 구매하며 착용하는 데까지 단 시간 안에 이뤄지기도 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아이템들이 빠르게 매진이 되며 ‘완판녀’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으며 캐릭터 또한 다양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처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캐릭터 이미지는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종류도 다양해져 가고 있고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법 또한 다양해져 가고 있다. 다양한 정보매체 중에서도 영화는 영상 예술의 대중화를 이루게 하였고, 영화적 재현 장치들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들을 대중에게 소개시켜 왔다.

영화는 문학적 스토리를 바탕으로 연극, 음악, 미술, 등 여러 예술 요소를 통해 영상 이미지로 만들어 전달하는 시각 예술의 종합적 완성 형태를 말

한다. 영화 속 인물들은 다양한 요소들을 만나 하나의 캐릭터로 완성이 된다. 영화 속 캐릭터, 즉 등장인물은 영화 전체의 이야기의 흐름을 끌고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는데, 장르적 특성에 따라 캐릭터를 가시화시키기 위한 표현 요소로 분장, 헤어, 의상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sup>1)</sup>

영화에서 배우는 등장하는 캐릭터를 통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다양한 역할에 따른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관객들에게 극 중 역할을 완벽하게 믿게 하기 위해 대사나 동작을 통한 연기 외에도 메이크업, 의상, 헤어 등의 외적요소를 통한 캐릭터 연출을 하는데 외적 요소들은 시대나 사회, 문화, 배경 등도 알 수 있으며, 성격 및 직업, 경제적 여건, 시대, 연령까지도 짐작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sup>2)</sup>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외적요소들은 영화의 변천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의 컴퓨터 그래픽(Computer graphics)을 비롯한 각종 기술적인 작업과 결합하여 무한한 영화적 상상력을 표현해 내면서 환상적인 화면을 제공하는 수준에 이르렀다.<sup>3)</sup>

예전의 한국 영화에서 분장은 내용전달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머물렀다면 현재는 연출된 이미지가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분위기까지도 좌우하게 된다. 캐릭터를 잡는 부분에 있어 분장, 의상 등의 외적 요소를 담당하는 아티스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생기게 되면서 외적요소들에 관한 총감독을 하거나 집행을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 분장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한국 스릴러 영화에서 표현된 캐릭터 분장에 대한 연구(서현숙, 2011), 사극영화의 캐릭터 따른 분장사례 연구(김서영, 2012), 특수 분장이 적용된 캐릭터 개발연구(이현

1) 서현숙, 2011, 『한국스릴러 영화에서 표현된 캐릭터 분장 요소 분석』, 경일대 산업대학원, p.2.

2) 김윤미, 2010, 『영화 포스터 이미지에 따른 캐릭터 이미지 지각』, 서경대 미용예술학과 석사학위 논문.p.2.

3) 김서영, 2012, 『사극영화의 캐릭터에 따른 분장사례 연구 : 영화“쌍화점”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융합문화 예술대학원, p.1.

주, 2012)등으로 한정되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명한 감독의 작품이거나 유명한 외국배우들 작품 중심으로 이루어져 한국 코미디 영화 속 캐릭터 표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코미디 영화의 캐릭터들은 관객들로부터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외형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얼굴에 큰 점이 있다거나 헤어스타일이 일상에선 연출하기 힘든 폭탄머리를 한다거나 머리 가르마 방향을 독특하게 연출하거나 무늬가 과하게 들어있거나 컬러가 강한 의상 등을 설정함으로써 각 분야의 아티스트들의 감각이 배우와 어우러져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시나리오에 표현되는 그대로, 또는 감독이 생각하는 캐릭터의 내면적인 요소 그대로를 외형적인 요소로 설정함으로써 관객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잔잔한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내면적인 요소들 중에서도 콤플렉스를 가진 또는 캐릭터들의 성격의 변화에 따른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의상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들이 많아지면서 코미디 영화 속 여성 캐릭터 표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 코믹 장르 영화 중 “미쓰 흥당무”를 중심으로 캐릭터들을 분석하고 유사 장르 속 다른 캐릭터들의 표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외형적 요소인 메이크업, 헤어, 의상이 캐릭터들에게 주어짐으로써 영화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영화 산업에서 내적 요소를 이용한 캐릭터 표현의 외형적 요소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개봉된 코미디 장르 영화 중 영화 “미쓰 홍당무”의 시나리오와 제작 배경 등을 수집하여 캐릭터 분석을 통해 외적요소가 캐릭터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로서 선행 논문, 학술지, 단행본, DVD,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 하였다.

연구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한 영화의 특성, 영화 속 캐릭터 역할 분장의 이론적 분석과 영화 속 캐릭터를 만드는 요소에 관한 선행 연구를 조사한다. 둘째, 본 연구자가 실제 영화 분장에 참여한 영화 “미쓰 홍당무”의 캐릭터 표현에 관한 연구를 하기위해 작품분석을 통한 작품 개요와 캐릭터 분석을 하였고 그에 따른 캐릭터 표현을 위해 사용된 메이크업, 헤어, 의상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시술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셋째, 유사한 장르의 영화 속 여성 캐릭터들에 관해 살펴보고 영화 속 다양한 여성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가 직접 분장에 참여한 영화들이 아니기에 재료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고 관객의 입장에서 각각의 캐릭터의 성격이 외적요소로써 어떻게 표현되어졌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각 각의 영화마다 상화에 따른, 인물의 심리변화에 따른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 의상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캐릭터를 만들어 냈는지 살펴보고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을 통해 코미디 장르 속 캐릭터들을 외적 요소로써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같은 방법들이 관객에게 전달되는 영향에 대한 결론을 추론하고자 한다.

### 2) 연구 범위

현재 한국 영화산업에는 다양한 장르가 존재한다. 그 중 코미디라는 장르 영화 속 주인공의 내면적인 요소들이 외형적인 요소로 표현된 작품들 중에 본 연구자가 분장에 직접 참여한 “미쓰 홍당무”로 작품을 선택하였다.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시행되는 외형적인 요소의 변화, 다시 말해 메이크업 하나에도, 헤어스타일과 모발 길이에 따라서 변화요인이 일반적으로 남자 캐릭터 보다 많은 여성캐릭터에 초점을 맞췄으며 ‘미쓰 홍당무’ 속의 주요 인물 네 명의 여성 캐릭터에 대한 메이크업, 헤어, 의상에 관해 분석하고 연구 하였다. 또한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한 여러 영화들 중에 유사 장르 속 여자 주인공 캐릭터 표현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미쓰 홍당무”의 영화 속 미숙이라는 캐릭터처럼 성격 등의 내면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외적요소에 관한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 인물의 성격이 대조를 이루며 이러한 대조적인 성격이 외형적인 요소로 표현된 사례를 보여주는 영화 “써니”의 ‘임나미’ 와 ‘하춘화’ 캐릭터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에 의한 캐릭터 표현을 분석한다. 또 외모적인 콤플렉스를 가진 주인공이 성형 수술을 통해 바뀌는 외모를 통한 외형적인 요소들이 표현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영화 “미녀는 괴로워” 속 ‘강한나’ 캐릭터에 관해 분석한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 1 절 영화의 이론적 분석

#### 1) 영화의 특성

영화란 스크린 상에 움직이는 영상(映像)을 말하는 것으로 창조적 요소와 기계 기술적 요소, 경제적 요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다. 즉 영화를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 작업과 촬영, 조명, 분장, 뉘음 등의 기술적인 요인들에 제작, 투자, 마케팅 등에 의해 완성되는 작업이다. 예술의 모든 형태들이 하나의 텍스트 속에 연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할 수 있는 예술 형식이며, 공간적 예술형태들을 집약시켜 시간적인 모든 표현형식들이 서로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는 표현효과이다.<sup>4)</sup> 영화의 영상은 카메라나 필름, 영사기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고 영화관을 통해 관객을 만나게 됨으로써 대중에게 전달된다. 대중에게 전달되면서 상품적, 사회적 가치를 가지게 되며, 관중에게 심리적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예술적 또는 오락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렇듯 영화는 예술의 한 갈래이면서, 단순한 예술의 영역을 넘어선 넓은 사회 문화적인 복잡한 현상을 말하기도 한다.

구석기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남프랑스의 라스코(Lascaux)동굴의 동물벽화는 영상을 발견하고 예술적 커뮤니케이션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정적으로 그려져 있기는 하나 동적인 것을 표현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이는 인류의 영화적 표현을 향한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구석기 시대의 남프랑스의 라스코(Lascaux)동굴의 동물벽화를 영화의 시발점으로 하여 그 뒤 환등이나 그림자극, 잔상(殘像) 현상을 이용한 장난감이나 움직이는 그림, 사진 등으로 구체화 되었고 이러한 요소들이 19세기 말에 종합됨으로써 오늘의 영화와 비슷한 영화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19세기 말 만들어진 영화 중 뤼미에르의 시네마토 그라프가 오늘날의 영

4) 이주연, 2005, 『1954년과 1995년의 영화 사브리나에서 나타난 토탈 코디네이션의 의상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에 관한 비교분석』,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p.6.

화와 형식이나 형태가 가장 가까웠고 그 이후 카메라가 생겨나고 전기가 발명되어 영사기가 되었으며, 셀룰로이드의 필름이 발명됨으로써 오늘날 영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영화는 단순한 기술적 발명이 아닌 현대 사회의 자본을 배경으로 출현하게 되고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걸쳐 과학과 공업이 만들어낸 성과로 새로운 기술의 발명으로 취급되었으며 하나의 테크놀로지(技術系)로 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자 새로운 사회적 언어로서도 이야기 될 수 있다. 대중을 상대로 한 매스미디어가 되었으며 시각정보(視覺情報)의 전달 매체,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이다. 배우의 연기나 표정 등이 그대로 관객에게 드러나는 연극과는 다르게 영화는 생동감 있는 배우대신 스크린에 비춰지는 영상을 통해 극의 내용을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다시 말하자면 영화는 카메라를 통해 관객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표현수단이 다른 것이다.<sup>5)</sup>

한 프레임의 사진들이 연결되어 영상이 되고 여기에 소리가 결합하여 동영상이 되는데 영화는 단순히 이 작업만 가지고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다. 영화는 스토리, 즉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종의 카타르시스(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감상함으로써, 마음속에 솟아오른 슬픔이나 공포의 기분을 토해내고, 마음을 정화하는 것)를 느끼게 하는 이야기를 내포<sup>6)</sup>하며,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게 되면 영화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렇듯 영화는 총체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한편 관객의 호응을 얻어내야 하는 상업적인 매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매번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관객이 원하는 방향을 잘 파악하게 되고 영화제작이 끝난 후에도 관객의 반응을 잘 얻어낼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서 개봉을 하기도 하는 등의 이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일종인 것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영화는 제작자와 감독, 미술, 편집, 연기, 촬영 등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예술문화이며 이러한 구성들이 각자 제 역할을 해줬을 때 완성도 높은 영화 제작이 가능하다.

5) 김태환, 2006, 『영화의 구성요소가 배우에게 미치는 영향』,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p.6.

6) 서현숙, 2011, 『한국 스릴러 영화에서 표현된 캐릭터 분장 요소 분석』, 경일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5.

영화 제작자는 영화로 제작될 시나리오를 선별하고 영화제작의 기획 초기 단계부터 제작 완성 단계까지 창의적 관리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영화 투자에서 홍보, 마케팅까지 전반적인 영화제작에 관여하며 제작 시기, 개봉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영화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화제작자가 영화 제작 전반적인 부분을 관여한다면 영화감독은 영화 내용에서 편집, 배우들의 연기, 미술 분야까지 이야기 전개상 전체적인 흐름을 총 지휘하며 책임을 맡고 있다. 이렇듯 예술적인 모든 분야에 관여하는 감독을 제작진 대표라 할 수 있다.

영화에서 미술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사람을 미술감독 또는 프로덕션 디자이너라고 칭한다. 이들은 영화 속 배경이나 공간을 구성하고 메이크업, 헤어, 의상에도 관여를 하며 영화의 조형적인 모든 면을 영화에 맞게 결정하고 지휘하는 사람이다. 각 장면 속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채우고 세트를 제작하며 장면에 어울리는 색을 결정한다.

분장은 배우가 가지고 있는 실제 이미지를 영화로 접목시켜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이야기 속 캐릭터에 맞게 메이크업과 헤어를 설정하여 연출한다. 이러한 메이크업이나 헤어 스타일링은 극 중 캐릭터의 심리 묘사에 영향을 끼치며 배우의 연기와 분장이 결합이 잘되었을 경우엔 이야기 전개 흐름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할 경우엔 오히려 관객이 흐름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캐릭터의 상황에 맞게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은 중요하다. 의상도 마찬가지로 극 중 캐릭터의 상황 묘사에 도움이 되며 의상의 컬러나 무늬 등으로 캐릭터의 심리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듯 영화 미술은 인물에게 접목되는 컬러나 무늬 등 조형적인 요소들이 극 중 인물의 성격과 사회적 지위 등을 표현해주는 이미지 전달 역할과 극의 주체와 분위기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화 편집은 전체 구성을 잡아주는 것으로 전체적인 리듬과 템포가 중요하며, 또한 편집자는 감독과 관객사이에서 감독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

장 알아듣기 쉽게 관객에게 전달하는 중간 매개체이다.<sup>7)</sup> 즉, 영화에서 각종 기법을 이용하여 샷과 쇼트를 유연하게 연결함으로써 이야기 흐름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연기는 연출자가 지시하는 대로 캐릭터 내적·외적 행동을 무대에서 표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생물 등 모두가 연기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변화 등을 배우가 연기를 통해 보여줄 때 관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으며 영화의 성격과 전반적인 전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촬영감독은 감독이 생각하는 장면 장면에 대한 생각을 기초로 해서 조명을 결정하고 카메라 렌즈를 결정하여 움직임과 프레임 각도를 결정하는 인물이다. 흔히 촬영감독은 촬영에 관한. 즉, 카메라 기법과 움직임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관여하고 조명감독이 촬영감독이 잡은 카메라 프레임에 따라 극의 흐름에 맞게 조명을 설치, 수정하여 장면을 완성시켰다, 하지만 최근 국내 영화산업에서는 시네마토그래퍼(cinematographer)라고 불리며 또는 C·P 라고 불리기도 하는 촬영과 조명을 총 감독하는 사람이 생기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음향, CG 등도 극 전개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영화 속 OST(Original Sound Track)가 음반 차트 순위 안에 진입하기도 하는 등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 요소 중 하나이다.

영화는 한번 필름으로 제작되거나 디지털로 제작되었을 경우 무한 반복 재생이 가능하며 여러 별로 복제(Copy)도 가능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상영도 가능하다. 과학적 자료 저장매체(필름, LD, VTR등)에 의해서 오랜 시간 보존 할 수도 있으며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그래픽의 도입 등이 이뤄지면서 무한한 표현가능성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은 물론 심리학적 인간의 내면까지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

7) 김윤미, 2010, 『영화 포스터 이미지에 따른 캐릭터 이미지 지각』, 서경대 미용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p.4.

## 2) 영화 장르로써 코미디의 특성

영화는 멜로, 공포·범죄·스릴러, 액션, 판타지,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미쓰 홍당무”의 장르인 코미디에 대해 고찰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사전적 의미로 코미디는 비극(tragedy)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코미디의 원래 주목적은 일반인들에게 웃음을 제공하는 것이다.<sup>8)</sup> 코미디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주변 이야기들이며, 시사적인 내용이나 정치적인 문제를 소재로 삼는다. 연극이나 영화, TV에서 긴장된 대목에 우스운 장면을 섞어 지나친 긴장감을 늦추는 것을 코미디 릴리이프(Comedy relief)라고 말한다. 긴장된 상황(situation)과 희극적인 상황의 대립적인 발전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앞의 상황보다 한층 더 효과적인 장면을 묘사하기 위한 수법이다.

영화장르에서 코미디는 관객에게 웃음과 환희를 주며 결국 행복하게 결말짓는 것이라고 말한다. 대사나 행동이 웃음을 유발하는 원천이 되고 다소 과장된 듯하면서 해학적인 소재들을 다루어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며 관객들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이완시키는 장르이기도 하다. 영화에서 코미디는 연극보다 시각적 현실감이 뛰어나며 또한 물리적인 리얼리티를 희극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 코미디는 영화사 초기부터 등장했으나 시각적 차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중적인 볼거리로 존재하였으며 고급 예술의 형태를 떠었다고 볼 수 없었다. 당시의 영화는 보드빌쇼나 통속 베라이어티 쇼, 심지어 서커스에서조차 영향을 받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아 영화 고유의 희극을 창조하였다.

감독 겸 배우였던 프랑스인 막스 린데(Max Linder)에 의해 댄디풍의 코미디 캐릭터가 창조되었으며 이는 영화사 초기 코미디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린데는 맥 세네트(Mack Sennett)의 작품에 뚜렷하게 나타나며 영국의 희극 배우이자 감독 이였던 찰리 채플린(Charles Chaplin)의 작품에도 나타난다. 세

---

8) NAVER 지식백과

네트의 키스톤(Keystone)영화사의 세네트는 슬랩스틱이라는 양식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인물이며 이 영화사에서 제작된 작품들로 미국 코미디가 시작되었다. 그는 흥미로운 액션 상황에 희극이라는 요소를 추가하고 기이할 정도로 우스꽝스런 형상으로 등장인물을 표현하였다. 시간과 공간을 왜곡시킨 체 등장인물이 처하는 모든 상황을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이들의 방식이었다. 영화의 희극적인 양식이 발전되고 ‘코미디의 황금기’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슬랩스틱과 마임은 우스꽝스러움과 동시에 인간적인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

발성영화가 출현하게 되고 유성 영화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코미디는 대사를 이용해 희극을 표현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우스꽝스럽고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대사를 통한 코미디가 살아남기도 했으며 세련되고 지적이며 위트 있는 재기 발랄한 대사들도 크게 인기를 끌었다. 1930년대에는 섹스와 돈에 관한 이야기를 일상성으로 묘사하는 영화가 대단한 인기를 끌었으며 194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야기의 위트보다는 블랙코미디나 감상주의로 빼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코미디 영화는 끊임없이 발전하며 다양한 소재와 위트 있고 우스꽝스러운 대사들을 사용하여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끌어 모았으며 매년 여러 코미디영화가 제작되었다. 1963년에 제작된 헨리 필딩(Henry Fielding)의 고전 소설을 각색한 토니 리처드슨(Tony Richardson)의 역작 [톰 존스](Tom Jones, 1963)가 그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영국 코미디 영화부문에서 처음 수상을 하였다.

한국 최초의 코미디영화는 이필우가 당시 조선일보 인기 연재만화를 영화화한 [멍텅구리 헛물켜기](1926)이다. 이 시대 한국 코미디영화는 전통적으로 민간희극의 성향을 띠고 있었지만 사회여건상 활발하게 드러나지 못했다.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영화사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전쟁 이후의 시대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이기도 하여 코미디 영화들이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질 못했다. 따라서 그 시대에는 코미디 영화들은 영상으로 남은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시기 한국 코미디 영화는 코미디언이 주인공으로 슬랩스틱이 많았고 코미디언들의 다양한 얼굴 표정과 몸의 표현을 많이 썼음을 연구 자료에서 살펴 볼 수 있으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영상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전쟁이후 혼란스런 사회분위기와는 다르게 사회와 역사에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코미디는 인기를 끌지 못했다. 최근의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1950년대 후반 코미디영화의 등장자체가 “전쟁 후의 한국사회가 희극을 수용하는 사회로 변모”<sup>9)</sup>했음을 보여주며, 이 시기 코미디들이 내용이나 성과를 떠나 코미디 영화의 패턴을 마련했다<sup>10)</sup>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평가했다.<sup>11)</sup> 또한 이 시대의 코미디영화를 드라마적 구성과 주제를 다룬 ‘시추에이션 코미디’ 형태와 코미디 텔런트가 희극을 유발하는 ‘슬랩스틱 코미디’형태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1950년대 후반에 오영진 원작의 [시집가는 날]이 아시아 영화제 특별 희극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적 희극영화의 가능성은 열어놓았다.<sup>12)</sup>

1960년대 전반기에 4·19 혁명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대한 현실반영과 풍자성이 강화되었으며 1960년대 후반기에 코미디영화사 전체에서 작품 편수나 관객 호응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한국 변장코미디영화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적 근대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이 텍스트에 반영<sup>13)</sup>되어 있으며 변장을 통해 인물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변장 코미디영화는 저속하고 저급하다는 사회전반적인 평을 받았으나 제작편수나 흥행작품수 면에 있어서는 한국 코미디영화사상 ‘최다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1970년대 접어들어 유신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영화, 연극, 음악 등 문화·예술 전반적인 분야에서 사회적인 제제를 당했으며 이 때 한국 영화산업 역시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한국영화사에서도 1970년대는 암흑기로 명명되며 한국 코미디 영화는 과감한 시도를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림1> 심우섭 감독의 영화[남자와 기생] ‘여장남자’ 코미디로 이전 시대와

9) 이영일, 1988, *한국영화주조사*, 영화진흥공사, pp.423~424.

10) 이영일, 2004, 『한국영화전사 - 개정증보판』, 서울 소도, p.277.

11) 박선영, 2011, 『한국 코미디영화 형성과정 연구』,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

12) 오은실, 1993, 『한국영화에 나타난 희극성 연구 --사회상의 반영에 따른 특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석사학위논문, p.22.

13) 서곡숙, 2004, 『1960년대 후반기 한국 변장코미디영화의 대중성 연구 : 변장모티프를 통한 내러티브 전략을 중심으로』, 동국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3~4.

의 불연속적 관계에 놓인 한국사회의 젠더 질서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작품<sup>14)</sup>이며 코미디의 시초이기도 하다. <그림2>는 조선시대와 근대화가 이루어진 1970년대 한국 풍경을 담은 넌센스 코미디 영화 [염통에 텔 난 사나이]이다. 그 밖에도 [당나귀 무법자], [팔도 가시나이], [애교로 봐주세요], [맹물로 가는 자동차]등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작품들이 많았다.



<그림1> 남자와 기생



<그림2> 염통에 텔 난 사나이

1980년대 역시 코미디장르에는 거의 주목할 만한 영화들이 나오지 않았다. 1980년대 내내 양산되었던 에로영화와 함께 코미디영화는 저예산 B급 영화들에 속했다. 그나마 에로장르 코미디의 코드를 적극적으로 차용한 [변강쇠]시리즈가 새로운 시도였다면 이명세 감독의 [개그맨]은 낯설고 황당하기조차 한 블랙 코미디적인 양식을 선보였으며 1980년대 코미디 영화 중 가장 독장적인 존재였다. <그림3>은 변강쇠 시리즈 중 세 번째 이야기의 포스터 자료이며, <그림4>는 이명세 감독의 개그맨의 포스터 자료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 코미디 영화사회는 겸열과 정책 개입 속에서도 문화성에 대한 끗끗함을 아주 잘 이어온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림3> 변강쇠



<그림4> 개그맨

14) [www.naver.com](http://www.naver.com) 출처. <1970년대 한국코미디의 어떤 경향: 한국영화회고전> 부천국제영화제 웹문서

1990년 이후 한국 영화계를 이끈 제작 인력들은 1970, 80년대 외국문화원을 섭렵하면서 영화적 감성을 키워온 신진 영화인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 자본과 결합해 관객과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짧은 세대의 영화를 생산하였다. 신씨네의 신철, 씨네2000의 이춘연, 기획시대의 유인택, 영화세상의 안동규, 명필름의 심재명, 우노 필름의 차승재 등은 2000년대까지 소위 '뉴충무로' 시대를 이끈 제작자들의 중심이 되었다. '기획영화'는 신세대로 대변된 짧은 총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코미디 장르가 주류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고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라 영화 관객층도 변하였으며 대중 소비사회로 바뀌는 변화를 재현했다. 신세대 관객들은 1980년대의 사회적인 영화보다는 코미디류의 영화를 선호하였다. 그래서 영화관객층에 맞는 기호 도를 탐구하여 제작한 전문기획 영화들이 만들어졌고 짧은 이들의 취향에 맞는 영화들이 제작되었다.

한국 최초 코미디영화에서 1980년대 한국 코미디영화는 코미디언이 연기를 하는 시대였다면 1990년대부터는 코미디언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의 '장르'로서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개봉한 김의석 감독의 [결혼이야기]가 로맨틱 코미디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포문을 열었고 그 이후로 로맨틱 코미디가 대거 등장하였다. 이때 등장한 영화로는 강우석 감독의 [미스터 맘마](1992), [마누라 죽이기](1995), 신승수 감독의 [아래층 여자 위층 여자](1992), [가슴달린 남자](1993) 등이 있다. 1993년에 개봉한 강우석 감독의 <투캅스>는 코미디영화가 장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개봉하는 코미디 영화마다 흥행을 하게 되자 그 영화들의 시리즈까지 제작이 되어 개봉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첫 영화만큼 명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1990년 중·후반부터 2000년 이후에는 [조폭마누라], [달마야 놀자], [가문의 영광], [두사부 일체] 등 조폭영화가 두드려 졌다. 조폭이 주요한 내용이 되는 것은 물론, 내용 곳곳에 조폭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며 인터넷 소설이 영화화 된 사례도 많다. [엽기적인 그녀], [동갑내기 과외하기]와 같은 코미디 영화들은 모두 인터넷 소설이 영화로 제작된 것이며 이후 10대 취향의 인터넷 소설이 많이 개봉되었다. 또 최근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사용량이 많아지고 인터넷 사용

이 보편화 되면서 ‘웹 툰’이라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생기게 되었고 대중에게 인기가 많은 웹 툰이 영화로 제작되기도 한다. 현재도 강풀의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웹 툰이 코미디 장르의 영화로 제작되고 있다. 코미디 영화의 소재가 다양해진 만큼 코미디 속에서도 다양한 장르를 내포하고 있으며 한 편의 영화가 개봉하게 되면 코미디 중에서도 어떤 장르의 코미디인지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로 로맨스와 코미디가 만나서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가 되는데 이는 로망스 소설의 내러티브 구조를 갖고 있으며 남녀 간의 사랑이야기를 기본 모티브로 삼고 있다. 이러한 로맨틱 코미디는 결코 심각하지 않으며 엉뚱하기도 하고 유쾌하기도 한 에피소드로 꾸며지며 [제제한 로맨스](2010, 김정훈 감독), 뮤지컬이 원작인 [김종욱 찾기](2010, 장유정 감독) 등이 로맨틱 코미디 영화 중 하나이다.



<그림5>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영화

두 번째는 명랑한 웃음을 자아내는 유머와 달리, 사람을 웃기면서도 인간 존재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날카로이 느끼게 하는 것으로, 유머에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이지만, 블랙 유머는 오히려 인간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 숨어있다. 영화 [박수칠 때 떠나라](2005, 장진 감독), [바르게 살자](2007, 라희찬)와 같은 영화들이 블랙코미디 영화이다.



<그림6> 블랙코미디 장르의 영화

세 번째는 한편의 성공이 속편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가진 개그 코미디이다. 대부분 같은 캐스팅으로 이뤄지고 비슷한 스토리와 비슷한 구조를 취하며 1편의 기대를 안고 2편을 보기위해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개그코미디는 '개그'라는 특성 때문이며 TV오락물인 개그프로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매주 같은 코너, 같은 인물, 같은 말투, 같은 유행어임에도 오랫동안 시청자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점이 '개그코미디'가 가진 장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가문의 영광](2002, 정홍순 감독) 시리즈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가문의 영광]이 흥행하자 [가문의 위기], [가문의 부활] 등으로 해서 2011년까지 4편의 시리즈를 완성하였으며 2012년 12월에 5번째 시리즈가 개봉 될 예정이다.



<그림7> 개그코미디 장르의 영화

네 번째는 섹스코미디이다. 내면의 성애를 회화화한 코미디이다. 노골적으로 섹스에 대해 얘기하고 성에 관련된 스토리가 영화 전반적인 내용이지만 결코 야하지 않게 재미로 풀어나가는 방식의 코미디 장르이다.

영화 [누가 그녀와 잤을까?](2006, 김유성 감독),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2006, 이하 감독) 등의 작품을 말할 수 있다.



<그림8> 섹스 코미디 장르의 영화

### 3) 캐릭터 개념 및 특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미지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서 받는 느낌을 말하는데 이는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분위기, 감각, 연상 등의 총체적인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인간의 지각활동에 의해 형성된다.<sup>15)</sup> 즉, 이미지는 실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상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실체를 보고 웃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실체의 이미지에 의해 반응을 하고 감정을 표출한다. 영화 속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캐릭터가 하고 있다.

캐릭터의 의미를 살펴보면 소설이나 연극 따위 등장하는 인물, 또는 작품 내용에 의해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가 부여된 존재라고 말하며 디자인

15) 이혜진, 2006, 『영화 장르에 따른 캐릭터 이미지 분석 : 조니 뎅이 출영한 영화 중심』, 서경대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7.

에 도입되어 사용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광고에서는 광고의 성격 자체를 캐릭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캐릭터를 영화적 의미에서 말하고자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다양한 허구적 인물.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조연, 단역 등 영화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을 포함한다. 이들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영화 속 캐릭터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들의 행동에 의해 극이 전개되고 전개 과정이 관객으로 하여금 사건의 실체를 파악케 한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캐릭터를 완성하는 것은 연기자이다. 연기자는 캐릭터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특성 외에도 언어적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표정, 손동작, 걸음걸이, 버릇, 말투 등 다양한 표현 요소를 총체적으로 동원하여 캐릭터를 가상현실 속에서 하나의 실존하는 인물로 구체화한다. 텍스트로만 구성되는 소설과 달리 영화에서는 대사, 외모, 행동이라는 요소에 의해 등장인물이 묘사된다. 이때 다른 인물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인물의 생각, 심리상태, 성격 등이 드러난다. 영화에서 캐릭터는 시나리오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 및 기질특성을 토대로 구축된 이미지를 말한다.

캐릭터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변화가 불가능한 배우의 신체적 특징 및 인상학적 특징과 변화가 가능한 행동, 표정, 대사 등에 의해 캐릭터를 이해 할 수 있다. 한 영화에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배우 본인의 이미지와 겹치기도 하고 서로 반작용하기도 하면서 매우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이미지를 가지며 배우이미지와 캐릭터의 이미지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영화 속 캐릭터의 이미지는 배우 이미지와 뗄 수 없는 관계이다.<sup>16)</sup> 영화에서의 캐릭터는 움직이는 피사체로 다루어지거나 하나의 배경 요소로써 또는 영웅적·상징적 캐릭터를 등장시켜 전체이야기의 작위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왔고 점점 삶의 재현, 개인화된 캐릭터로 변모되었고, 점점 캐릭터 중심이 되고 플롯에 덜 집중하게 되었다.<sup>17)</sup> 영화 속의 캐릭터 이미지는 소설이나 연극의 캐릭터 이미지보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허구적 이야기 속에서 이미 설정된 인성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 아니라 배우의 생각과 생활이 어우러져 나타나고, 그것이

16) 김세희, 1996, 『배창호 영화의 캐릭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0.

17) 김윤미, 전계 논문, p.22.

관객의 눈과 마음에 다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또 영화 속 캐릭터는 스크린을 통해 보여 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종류 또한 다양하다.

선행연구에서 박희진(2008)은 캐릭터의 유형을 ‘비현실적인 캐릭터’와 ‘현실적인 면과 비현실적인 부분을 함께 가진 캐릭터’, ‘사실적인 캐릭터’로 분류했다.<sup>19)</sup> 먼저 ‘비현실적인 캐릭터’는 가상의 인물로 엉뚱하거나, 장난스럽고 몽환적인 캐릭터로서 과장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현실적인 면과 비현실적인 부분을 함께 가진 캐릭터’는 이성적이고 이지적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사실적인 캐릭터’는 순수하고, 부드럽고, 매력적이고, 로맨틱한 캐릭터로 시대적 배경, 직업, 환경 등에 따른 사실적 이미지를 표현하게 된다. 조미영(2008)의 경우는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분류했다. 외향적인 캐릭터는 ‘타인 중심적’으로 외부의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그것들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며, 내향적 캐릭터는 ‘자기중심적’이지만 이기적이란 뜻은 아니며 오히려 절제력과 자립심이 강한 사람을 의미한다.<sup>20)</sup> 이처럼 캐릭터는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 지고 있다.

## 제 2 절      분장의 이론적 분석

### 1) 분장의 개념

영화는 텍스트로 구성된 시나리오 속의 인물들에게 각각의 이미지를 부여해 줌으로써 캐릭터를 만들어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시각적 예술의 완성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시나리오에 표현된 인물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18) 유혜정, 2009, 『영화캐릭터에 표현된 패션 이미지 연구 : 메릴 스트립의 영화 속 캐릭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20~21.

19) 박희진, 오민영, 2008, 『‘배트맨’과 ‘다크나이트’ 영화 속의 악당 ‘조커’의 분장요소 비교연구』, 한국메이크업 디자인 학회, 3(4), p.14.

20) 조미영, 2008, 『춘향전 등장인물의 성격분석을 통한 분장적용에 관한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실제 인물인 것처럼 표현해야 한다. 배우는 대사나 동작 등을 통해서 극 중 인물의 리얼리티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분장, 헤어, 의상 등 시각적 요소를 통해서도 극 중 인물의 성격이나 직업 등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장은 가장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되며 화장 또는 분장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분장(扮裝)은 ‘나눌 분(扮) + 갖출 장(裝)’의 합성어로 ‘서로 나누어진 것을 만든다.’ 또는 ‘이루어진다. 나누어진 모든 것을 알맞게 챙겨 갖추도록 한다.’의 의미이다. 등장인물의 성격, 나이, 특징 따위에 맞게 배우를 꾸미는 일, 또는 그런 차림새를 분장이라고 일컬으며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Make-up 이라 하는데 이 역시도 ‘Make + Up’의 합성어로 ‘만들어서 상승효과를 주게 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완성시키다’, ‘보완하다’라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미화의 목적이나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을 뜻하며, 페인팅(painting), 투알렛(toilet), 드레싱(dressing) 또는 프랑스어의 마퀴아쥬(maquillage)등이 해당된다.

프랑스어의 마퀴아쥬(maquillage)는 원래 분장을 뜻하는 연극 용어였으며 투알렛(toilet)으로 변한 말로 화장을 포함한 치장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얼굴의 결점을 보완 수정하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 시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화장(化粧) 또는 메이크업(Make-up)이라고 한다면 분장은 극 중 배역에 맞게 배우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특수 분장처럼 강하게 분장의 요소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분장이라고 칭하지만 스트레이트 메이크업(straight make-up)이나 캐릭터 메이크업(character make-up)과 같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분장들은 뷰티메이크업과는 구분되면서 메이크업이라는 경계에 모호하게 걸쳐져 있어 얼굴에 꾸미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뷰티메이크업과 혼용하기도 한다.

물론 실질적으로 얼굴에 행해지는 모든 메이크업을 분장이라고 통틀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의 분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얼굴에 국한되지 않고 인체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작업 즉, 얼굴의 화장뿐만 아니라 의상, 헤어, 소품, 장신구 등을 모두 갖추어

등장인물로 전체를 변화 시켜야 완성된 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얼굴은 분장에 의해서 시대, 민족, 환경, 성격, 건강 등 시각적으로 표현되며 피부색과 피부상태의 따라 환경이나 직업, 건강상태가 보여 지며, 인종과 출생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얼굴 특징을 잘 파악하고 인물의 성격화를 위해 눈과 눈썹의 모양을 변형하기도 하며 노인의 모습이나 괴물의 형상처럼 특수 효과나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며, 얼굴의 흉터나 상처를 감추기도 만들어내기도 한다. 또한 분장은 얼굴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에도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상태 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상, 장신구, 배경 세트, 도구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와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영화 분장은 스토리 전개상 요구되는 특정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까지도 보여줌으로써 비언어적 의사 전달 수준의 하나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외모, 얼굴모양, 표정은 대화의 내용이나 몸짓, 행위이상으로 그 사람을 상대방에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sup>21)</sup> 영화 분장은 얼굴에 국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굴을 포함하여 외모 전체의 조화를 이룬 종합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분장은 배우를 대본이 요구하는 내용이나 상황에 맞게 가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극중 등장인물에 몰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적 표현<sup>22)</sup>방법인 것이다. 또한 인물의 성격묘사나 특정 신체 부분에 변형을 줌으로써 배우의 연기를 도울 수 있으며, 극의 흐름을 매끄럽게 연결시키고 관객에게는 흥미를 유발하게 한다. 그러므로 영화 분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상황에 맞는 캐릭터를 창출하는 지식과 감각이 필요하다.

분장은 영화 캐릭터를 시각화 하고 표현하는 작업으로써 기존에 보여줬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외관을 지닌 캐릭터를 창조해야 하며, 직업의 자유로움 속에서 캐릭터의 본성, 역사, 도덕성, 일상적 행위들의 반영을 위해 또는 진실 된 본성과 상반되거나 완벽한 상상력을 통해 캐릭터의 외모를 결정할 수 있다.<sup>23)</sup> 분장에 대하여, Georges Vitaly는 「분장은 조명을 받

21) 서현숙, 전계논문, p.16.

22) 홍수경 외, 2007, 분장기술, 서울 : 도서출판 예림, p.8.

으며 곧 무대에 오를 배우의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준비과정으로 소용되는 일체의 조작 및 절차」라 정의하였고, Mireille Berne는 「분장은 배우의 중요한 의사 전달 수단으로 배우의 풍모를 감추거나 왜곡시켜 관객들로 하여금 필요한 성격적 사실을 이해시키려는 수단」이라 하였으며 Dominique Paquet는 「분장은 하나의 예술이다」라고 정의하면서 분장의 독립된 예술성을 강조하였다.<sup>24)</sup>

다시 말해 영화에서 분장은 배우의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의사전달 수단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필요한 성격적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배역의 성격창조에 목표가 있으며 대본에 나타난 인물의 여러 상황을 분석하여 배우의 외모를 바꾸어 내는 직업이다.

## 2) 영상 분장의 종류 및 특성

분장은 연구 목적이나 표현방법, 매체 등에 따라 다르게 나누어진다. 기능에 따라서는 광의와 협의의 분장, 표현방법에 따라서는 일반분장과 성격분장, 매체에 따라 무대분장과 영상분장, 안료 기법에 따라 평민분장과 입체분장, 성격에 따라 일반분장과 특수 분장으로 나누어진다.

영상 미디어에서 분장은 작품의 내용에 따라 분장목적이 크게 달라진다. 분장사는 대본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성격, 연출자 또는 감독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영상분장은 관객과의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렌즈를 상대로 하는 분장을 말하며 카메라 렌즈를 거쳐 화면에 투영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분석과 세밀한 분장이 요구된다. 영상매체에서의 분장은 배우의 모습이 실제 인물인 것처럼 보여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 너무 과장된 분장은 피해야 한다. 즉, 자연스러운 분장을 통해 관객들에게 거부감이 들지 않게 분장을 해야 한다. 따라서 멋있거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

23) 서현숙, 전계논문, p.17.

24) 조마리아, 2003, 『한·중·일 전통극에 나타난 분장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기 보다는 작품 속에 설정된 인물의 직업, 성격 등을 잘 분석하여 배역인 물들이 현실로 비춰졌을 때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새로운 인물로 변화시켜야 한다. 프로그램이나 영화 속에서 배우의 분장이 이질감이 생기거나 관객들로부터 거부감이 생긴다면 이는 실패한 분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영상분장은 매체가 TV나 영화나에 따라 해상력의 차이가 나며, 색 재현의 방법과 차이에 의한 명도차 등으로 인해 영상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점차 TV화면이 고화질화 되어 지고 필름을 사용하던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로 고급화되고 조명 기자재와 발전된 테크닉에 의하여 연기자 얼굴의 미세한 결점까지 명확히 노출됨으로써 분장사로써 더욱 정확하고 세심한 분장이 요구된다. 촬영 도중 분장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제작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장면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 상태를 잘 체크해야 한다. 연극공연처럼 처음 시작에서 끝까지 이야기 흐름대로 가지 않고 앞 장면과 뒤 장면이 섞여져서 매일 다른 날 다른 장면을 들쑥날쑥 하게 촬영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므로 연결되는 장면 장면을 분장 스틸사진으로 남겨둬서 편집 후 장면이 연결되었을 때 끊어지지 않고 매끄럽도록 분장 상태를 유지해 줘야 한다.

영상분장은 카메라, 브라운관, 각종 방송 기자재 등 매개체를 통해 거리감이 무시되고 화면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생생히 전달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분장전문가는 기자재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을 필요로 하며 기자재가 첨단화 되고 정밀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분장사도 재료나 테크닉의 노력이 요구된다.

### ① 일반분장

TV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특별한 테크닉을 보이지 않는 가장 기본 분장 기법을 말하며 방송프로그램 성격이나 연출자 의도, 연기자의 특성 등을 잘 파악하여 표현해야 하며 색조를 강하게 사용하는 표현보다는 피부표현에 중점을 두고 강한 조명에서도 아름답고 깨끗한 피부색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상으로 하는 표현 기법이다. MC나 뉴스캐스터, TV리포터 등이 이

에 해당되는 분장이며 TV프로그램 분장에서는 멋있거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작품 속에 설정된 인물의 성격이나 상황, 직업, 연령 등 다양한 모습을 이질감이 가지 않도록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줘야 한다.

### ② 성격분장

대본에서 얻어지는 배역의 성격을 실제 배우 얼굴 형태를 변형시키기 위해 분장재료들을 사용하여 평면 또는 3차원적으로 입체 변화를 주는 기법으로 배역의 성격을 관객이나 시청자들에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분장이다.

### ③ 영화분장

TV분장과 별차이점은 없으나 영화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을 만나게 되어 모든 인물들이 카메라 렌즈로 찍은 것보다 확대되어 지기 때문에 TV분장보다 더 섬세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시대극, 고전극, 현대극, 액션, 공포 등 다양하게 분류되며 특수 분장과 특수 효과, 컴퓨터 그래픽 등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배우 피부 톤에 맞는 파운데이션과 단순한 색조만을 사용하는 스트레이트 분장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하이라이트(hightlight)와 쇼이딩(shading)을 통해 인물의 특징을 살리는 간단한 분장을 말한다.

### ④ 특수 분장

일반분장을 토대로 하되 배우의 얼굴이나 신체에 인위적인 변형 또는 보강을 통해 급격한 외모 변화를 주기위한 분장이다. 캐릭터 분장뿐 아니라 기계나 기술과의 합성을 통하여 현실과 묘사가 상호 융합된 환상적인 화면을 제공하는 특수 효과 분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재 우리나라 특수 분장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재료들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특수 재료들이 많으며 특수 분장사는 이러한 재료의 화학적 성분에 의한 물리적 변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전문재료의 성분, 특성, 파악과 이용법, 통계수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영화시스템의 자본력이 거대해지고 전자 기계기술과 컴퓨터 기술력이 발전됨에 따라 특수효과 분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불가능한 캐릭터나 시공간의 초월적 상황들을 시각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를 대표하는 것이 애니메트로닉 분장(animatronic make up)과 디지털 분장(digital make up)이다. 애니메트로닉 분장(animatronic make up)은 1960년대 이후 기계와 전자의 발전에 힘입어 라텍스 인형과 기계 장치인 애니메트로닉의 합성에 의해 만들어진 원격 조정 가능한 자동인형을 이용하여 배우 신체의 일부를 보완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특수효과 분장이다.<sup>25)</sup> 디지털 분장은 1980년대 이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3D 이미지의 캐릭터와 정교한 동작, 상상세계에서만 가능한 장면들을 사실적인 분장효과 표현할 수 있는 최첨단 방식의 특수효과 분장이다.<sup>26)</sup>



---

25) 서현숙, 전계논문 p.24.

26) 상계논문, P.24.

### 제 3 절 영화 속 캐릭터를 만드는 요소

앞에서 언급했듯이 분장은 얼굴과 헤어스타일, 의상 등 모든 분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고 했기에 영화 속 캐릭터를 만드는 요소에 관한 본고에서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의상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1) 메이크업

영화를 보면 배우가 특별히 달라진 경우는 거의 드물고, 헤어스타일이 변했다든지 뭔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약간 느낌만 다르게 보여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우를 캐스팅 하는 과정에서 배우의 이미지를 보고 배역에 어울리는 배우를 캐스팅하기 때문이다. 배우 본인의 생김새와 개성을 살려 안한 듯이 자연스레 분장해 주는 것이 스트레이트 메이크업(Straight Make-up)이며 영화에서는 스트레이트 메이크업을 기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뷰티메이크업과 배역의 성격이 요구하는 성격 메이크업을 병행하게 된다.<sup>27)</sup>

영화 속 메이크업의 기본은 배우가 가지고 있는 피부 톤에 맞춰서 파운데이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부 톤에 맞지 않게 된다면 화면에서 비춰지는 배우의 얼굴과 목이나 손등의 다른 피부 톤과 이질감이 생기게 되므로 관객이 연기에 몰입하는데 방해가 되며 극의 흐름이나 분위기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 오랜 노하우를 가진 분장사라면 육안으로도 배우의 피부에 맞는 톤을 찾아 낼 수 있지만 완벽한 피부 톤을 찾기 위해서는 사전에 배우에게 테스트를 해서 확실하게 찾은 후 촬영에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배우의 피부색에 따라 다른 느낌의 연출이 가능한데 이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어떤 컬러를 선택 하느냐에 따라서도 피부색은 달라질 수 있다. 자연스런 피부 톤을 원할 때는 자연스러운 색이나 투명한 색의 메이크업

27) 황현규 저, 2000, 『황현규의 분장이야기』, pp.133~134.

베이스를 선택해서 표현하며 창백하거나 투명한 느낌을 원할 때는 연보라색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깨끗한 피부표현을 연출할 때는 연초록색, 혈색을 주고 싶을 때는 분홍색 메이크업 베이스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면 파운데이션만 사용했을 때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메이크업 베이스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잘 먹지 않으므로 농도에 따라 적당량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하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선택하여 발랐다면 파운데이션을 선택해야 한다.

파운데이션은 제형에 따라 리퀴드, 크림, 스틱 타입이 있으며 리퀴드는 얇게 발리고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지만 커버력이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크림타입과 스틱타입은 유분이 많지만 커버력이 리퀴드 타입보단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미디어는 고화질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발리면서 커버력이 있는 제품을 원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제형마다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결합시켜 고화질 영상에 맞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따라서 분장사들은 이러한 제품들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해서 영상화면에 잘 표현되고 배우에게도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파운데이션의 컬러에 따라서도 얼굴의 이미지가 달라 질 수 있다.

자연스러운 톤은 배우 본인의 피부 톤에 맞춰 표현하면 되고 건강이 좋지 않아 얼굴색이 어둡다거나 햇볕에 그을린 피부 등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빛기 없는 창백한 얼굴을 하거나 약물 중독 등의 주어진 특정 상황에선 배우의 피부 보다 밝은 파운데이션을 선택하여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때 배우 본인의 톤과 차이를 두는 파운데이션을 선택했다면 얼굴과 연결되는 목 부분과 화면에 보이기 쉬운 손 등의 피부에도 얼굴과 맞춰 표현해 주어야 한다.

배우 본인의 강한 얼굴선에 쉐이딩을 줌으로써 부드러워 보이는 착시효과를 내거나 콧대를 바로 잡아준다거나 눈 두덩이에 살이 많아 부어 보이는 눈 등에도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음영효과를 줄 수 있다.

눈썹은 얼굴 안에서 가장 쉽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부위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모양도 다르다. 눈썹의 모양이나 숲 등에 따라 배역의 성격을 보

여 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배우마다 다른 눈썹을 배역에 맞게 뽑거나 눈썹 칼로 다듬어서 모양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눈썹 펜슬로 본인의 눈썹 보다 강하게 더 그려줌으로써 배역의 성격을 표현해 줄 수 있다. 영화 메이크업에서는 너무 강하게 그려서 자연스러움과 이질감이 생기게 된다면 캐릭터를 만드는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배역에 따라 남자들도 아이라인을 그리기도 하고 여배우들 같은 경우엔 장면 특성상 또는 배우의 캐릭터 특징상 아이라인을 생략하기도 하고 또는 점막부분에 메우는 정도로 자연스럽게 연출함으로써 배우가 눈을 감았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게 메이크업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순박하고 청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라인을 그려주거나 생략하기도 하며 강한성격이나 화려한 외모를 표현하고자 하거나 특정 직업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라인을 강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이라인 색깔을 흔히 사용하는 블랙이나 브라운이 아닌 펄이 들어있거나 색이 화려한 아이라인을 사용한다.

보통 영화 속에서 메이크업을 안 한 상황으로 온다거나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스트레이트 메이크업을 한다. 단지 안한 것처럼 최대한 자연스럽게, 얇게 표현하는 것이며 단순히 연한 메이크업이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색상을 사용하지 않고 조화를 잘 이룬 메이크업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영화에서 메이크업은 배우의 피부 상태가 메이크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분장사 또한 어떤 피부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령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분장사는 다양한 배우 피부 타입별로 써야하는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연구해야 하며 메이크업 제품의 색상, 제형 타입별 특성에 대해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여 캐릭터에 잘 접목시켜 메이크업을 통한 캐릭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같은 캐릭터라 하더라도 카메라 앵글 사이즈에 따라 즉, 풀 샷이나 타이트한 클로즈업 등의 앵글 사이즈에 따라 메이크업에 변화를 줌으로써 상황에 맞게 연출 할 수 있다.

## 2)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의 사전적 의미는 ‘머리를 매만져서 꾸민 형, 머리의 꾸밈새’를 말하며 모발을 가다듬어 개인의 외적 이미지를 아름다움답게 표현하고 개성을 살려 꾸며는 장식의 일종이다. 신체를 장식하는 수단이기도 하며 신체 보호기능과 심미적이며 주술적인 기능도 지닌 종합적 표현 수단인 것이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계속해왔다.

분장 요소로서 헤어스타일을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 부와 권력을 상징으로 지위나 신분을 나타냈으며 현대에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단순한 장식, 본능적 행위에서 발전하여 개인의 결점을 보완하여 자신감을 부여하는 심리적인 작용과 함께 인간의 미적 가치를 높이는 생활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영화에서의 헤어는 사실적이고 정교한 색상과 형태의 묘사를 통해 표현하는 가식적인 예술이며 인물의 특징 및 전반적인 묘사를 할 뿐만 아니라 상황까지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얼굴 형태나 분위기를 포함하여 외모를 구성하는 다양한 자기 연출이 가능한 대표적인 요소로 발전해왔고, 외적인 미를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의지를 표출하는 가치를 형성하게 되었다.

헤어스타일의 디자인 요소는 형태, 질감, 색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형태란 전체적인 윤곽을 의미하며 질감은 곱슬모, 직모, 가는 모발 등 촉각적인 것을 포함한다. 색상은 색에서 오는 심리적 측면과 명도와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디자인 요소로서 작용한다.<sup>28)</sup>

헤어스타일은 등장인물의 기질, 기분상태, 감정, 개성 등을 포함한 정신적, 정서적 상황뿐만 아니라 인물의 사회적 위치, 직업이나 계층 등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sup>29)</sup> 캐릭터의 극중 나이와 직업적 스타일, 이미지는 물론 시대적 배경을 표현하는 요소로서 헤어스타일의 연출에

28) 김해영, 2007, 『얼굴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형태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헤어 커트 스타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3.

29) 강은미, 2010, 『영화 속 캐릭터 특징에 따른 스타일 요소 연구 : 영화배우 송강호, 설경구가 출연한 작품을 중심으로』, 『복식문화 학회지』 18(2), 복식문화학회, p.293.

따라 변화하는 배우의 이미지는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에 대한 이해와 몰입도를 높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이상적 이미지를 위해 영화의 배경이 되는 특정시대의 문화적 환경, 패션의 경향에 따라 배역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 3) 의상

영화의상은 배우가 착용하게 되는 의복, 장신구 등을 말하며 이는 메이크업, 헤어스타일과 함께 영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공연예술과는 달리 영화는 클로즈업을 통해 심리적인 변화를 가까이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의상의 재질이나 장신구 등을 통하여 옷을 입고 있는 배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엄, 천박, 자유, 속박 등을 암시한다.<sup>30)</sup>

영화에서 의상은 캐릭터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의 외면적 상태뿐 아니라 심리적 상태까지 표현하여 인물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며 영화의 사회적 성격과 문화적 요소가 침가되어 영화의 가치를 높여준다. 캐릭터의 사소한 습관이나 세밀한 성격까지도 의상의 색과 세부 디자인, 스타일, 착용상태를 보고 짐작할 수 있다.<sup>31)</sup> 김명(2009)<sup>32)</sup>의 연구에서는 영화 의상의 역할을 예술적 역할, 캐릭터의 상징적 역할, 물리적 역할로 정의하였는데 그 중 캐릭터의 상징적 역할을 하는 영화 의상은 등장인물의 기초적인 지식에서부터 성격에 이르는 것들을 상징하거나 암시, 묘사 하여 극중 캐릭터의 개성을 창조함으로써 의상의 색조와 재질로 표현하여 주제를 알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객의 흥미유도와 함께 복선의 효과를 담당한다고 정의하였다. 영화에 등장한 의상은 영화의 특성상 영화가 개봉되는 시점부터 대중에게 어필하여 유행을 창조,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배우와 의복과의 상호작용은 영화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연기자의 감정표현을 돋는 보조 수단으로서 영화의 주제를 암시하는 역할을

30) 이화영, 2002, 『영화의상과 표선성에 관한 연구 :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등장 인물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6.

31) 김유선, 2009, 『영화의상과 디자인』,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p.11.

32) 김명, 2009, 『영화에 나타나는 성격장애 주인공의 캐릭터 이미지 분석에 관한 연구 : B군 성격 장애의 분장 요소를 중심으로』, 조선대 디자인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p.10

하기도 한다. 영화 의상은 분장, 헤어스타일과 조화를 이루어 표현되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며 이는 관객에게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시각적 즐거움을 전달해 주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의상은 영화의 예술적 성격과 등장인물의 심리적 기능을 표현하고, 영화의 사회적 성격과 문화적 요소를 소개하여 영화의 예술적 가치가 살아나며, 미적 개념을 포함한 형태를 가진 의상은 영화에서 인물화 함께 움직이는 동적 미술이라 할 수 있다. 순수 미술적 관점에서 볼 때 영화 의상은 모든 인물과 함께 존재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조형물 인 것이다.

영화에서는 많은 시각적 표현 요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영화의상은 영화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복식을 뜻하는 것으로써, 시대, 민족, 경제, 직업 등이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 제 3 장 “미쓰 홍당무”의 캐릭터 표현

### 제 1 절 작품 개요

영화 ‘미쓰 홍당무’는 2008년 대한민국에 개봉한 코미디·드라마 장르의 영화이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사 모호 필름에서 제작하고 이경미 신인감독이 연출하였으며 상영시간은 100분이다. 공효진, 이종혁, 서우, 방은진, 황우 슬혜를 주요인물로 하였으며 그 밖에도 여러 인물이 등장하였지만 본고에서는 주요인물인 위 다섯 명으로 캐릭터의 범위를 정하였다.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빨개지는 안면 홍조 증을 앓는 여자 주인공 ‘양미숙’ 주인공으로 하여 그녀가 직장생활을 하며 사모 해온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한 남자 선생의 사랑을 얻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묘사하였다. 안면 홍조 증에 걸린 비 호감 양미숙은 신경질적인 말투, 촌스러운 패션을 고수하는 한 고등학교 러시아어 교사이다. 눈치 없고 호전적인 모습 등으로 그녀는 재직 중인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받고, 가르치는 제자들 역시 그녀를 무시하기 일쑤다.

‘지지난해 회식자리에서도 내 옆에 앉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내 옆에 앉은 걸 보면 서 선생님은 나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sup>33)</sup>

착각과 온갖 콤플렉스로 뜰뜰 뭉친 그녀는 학교에 함께 재직 중인 서 선생(이종혁)을 남몰래 짹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지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서 선생의 가벼운 호의에도 자신을 좋아해서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러시아어가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양미숙은 중학교 영어 선생으로 발령을 받고, 전공이 아닌 영어를 가르치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된다. 또한, 그즈음 같은 학교의 러시아어 교사인 이유리(황우 슬혜)와 서 선생 사이에 미묘한 호감의 기운을 느끼게 된다.

전공이 아닌 영어 수업을 맡게 된 양미숙은 출근하기 전에 영어 학원을

33) ‘미쓰 홍당무’ 시나리오 본문 S#8

가서 영어 수업을 듣는 등 열심히 하나 미움을 받게 되고, 대충 해도 사랑 받는 자신과 다른 이유리 교사에게 큰 질투를 느끼게 된다. 미숙이 영어교사로 발령 난 것도, 서 선생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도 모두 이유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이유리 교사에 대한 질투를 참을 수 없어 이유리와 서 선생을 떼어내고자, 자신의 제자인 서 선생의 딸 서종희(서우)와 동맹을 맺으며 짹사랑하는 서 선생을 사수하기 위한 삽질을 시작한다. 서 선생의 딸 종희는 이유리 교사가 자신의 아빠와 바람피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유리 교사를 미워한다. 그래서 동맹 맺은 양미숙과 이유리와 아빠 서 선생과의 사이를 떼어내려고 갖은 노력을 한다. 그러던 와중에 서 선생이 외박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사건은 점점 더 흥미로워 진다.

서 선생의 외박으로 종희는 이유리 교사에게 음성변조로 전화 걸어 따지게 되고 이로 인해 서 선생과 밤을 같이 보낸 건 양미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외박을 한 선생은 양미숙과의 하룻밤을 언짢아하며 집에 들어가 와이프 성은교(방은진)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 양미숙의 고군분투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두 수포가 되고, 서 선생은 자신의 부인인 성은교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유리 선생은 학교 동료인 변 선생과 커플이 되며 결국 남은 건 왕따와 전 따인 자신과 종희만 남아있음을 알게 되고 종희 라도 붙잡기 위해 결국 종희와 학교 축제 무대에 올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난다.

독특한 캐릭터와 이야기로 신선한 웃음과 재미를 보여준 이 작품은 세상의 모든 콤플렉스로 집약된 여 주인공이 어떻게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이다.

## 제 2 절 캐릭터 분석

“미쓰 홍당무”의 이경미 감독은 평소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데 잘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그녀는 이러한 시시콜콜한 일상의 묘미와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사를 장편 영화 데뷔작인 “미쓰 홍당무”에서 더욱 견고하고 세련되게 다듬어서 보여주고자 했다.

“미쓰 홍당무”의 주인공 ‘양미숙’은 자료 수집 없이 오로지 감독의 상상력만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이다. 적절한 대화와 감정의 공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서투르고 방법을 몰라서 어찌할 줄 모르는 소외된 이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현대사회가 솔직한 감정을 적절하게 드러내고 자기감정을 잘 숨기고 조절하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면 태생적으로 포커페이스가 어려운 안면 홍조 증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라는 작은 호기심에서 ‘양미숙’ 캐릭터가 탄생되었다고 한다. 안면 홍조 증 하나로 주인공을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기엔 불충분 하여 우울증, 소심증, 화병, 건강염려증, 피해과대망상증, 공격성 등 현대인이 가볍게 혹은 심각하게 앓고 있는 모든 정신적 질병을 ‘양미숙’ 캐릭터에 부여하여 현대인의 전형으로 입체화 시켰다. 그리하여 양미숙은 시도 때도 없이 빨개지는 안면홍조증과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 호감 외모, 세상의 모든 콤플렉스가 집약된 유례없는 인물로 완성되었다. 이러한 여인이 타인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보여주고자 하였다.

<미쓰 홍당무>의 여주인공 ‘양미숙’은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빨개지는 안면홍조증과 촌스러운 패션, 신경질적인 말투, 호전적인 성격으로 인해 따돌림을 받는 인물이지만 오랫동안 짹사랑해온 서선생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불철주야 노력하는 캐릭터이다. 온갖 콤플렉스와 착각으로 뜰뚱 친 ‘양미숙’은 피부과에서 연애상담을 하고, 웃깃만 스쳐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쓸데없이 학교운동장에서 삽질을 일삼는 등 예상치 못한 돌발행동을 하며 외모, 성격, 스타일까지 완벽한 비호감이지만 오직 ‘사랑’을 위해 삽질인 줄도 모르고 지나치게 열심인 양미숙의 특성들은 그녀가 극 중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 그리고 평상시 그녀의 생활방식에도 볼

수 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 양미숙 핸드폰 액정의 적어진 문구

“1등에 목을 빼느니 목을 빼겠다!!” – 미숙의 거울에 붙어있는 경구

“착하게 살지마라. 그럼 사람들이 너한테 못되게 군다! 근데, 니가 못되게 굴잖아? 그럼, 너한테 착하게 굴어! 그리고 너, 아무것도 열심히 하지마!! 열심히 해봤자 너만 손해야!”<sup>34)</sup>

- 종희한테 훈육하는 미숙의 대사

이러한 양미숙의 사고방식이나 대사들을 통해 그녀의 열등감이나 피해과 대망상증, 그리고 공격성 등을 엿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새벽부터 영어 학원을 다니고 안면 홍조 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니는 등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인물이며 축제 때 종희랑 무대에 올라가기로 결정한 후 열심히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창피해 하며 무대에 올라가기를 꺼려하는 소심함 등을 ‘양미숙’이라는 캐릭터 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보여주고자 하는 캐릭터는 국어선생 서종철의 딸이자 전교 왕따인 ‘서종희’라는 인물이다. 이 인물은 중학생이면서도 고등학교 선생님인 이유리에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당찬 인물로 극 초반에 등장하지만 결국 같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자기에 대한 친구들의 열등감이 심하다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기애가 강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곁으로 강하게 보이는 서종희 이지만 양미숙에게 축제에 같이 올라갈 친구를 찾아달라고 하는 등의 모습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 벨리 댄스학원 원장인 엄마와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인 아빠를 두고 있는 곁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외동딸이지만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자신의 편이 되어준 양미숙을 믿고 같이 축제 준비를 하는 모습, 극 후반부에 자신이 늘 ‘어머니’라고 부르는 ‘서은교’의 “엄마가 가르쳐 줄게!”라는 말 한마디에 가슴 뭉클해하며 “그동안 잘못했어요, 엄마!!”라고 바로 답하는 모습에선 엄마의 따뜻한 모습을 기대했던 순수한 중학생의 모습을 엿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서종희’라는

34) ‘미쓰 홍당무’ 시나리오 본문 S#18

캐릭터는 곁보기엔 완벽한 가정에서 태어난 남부러울 것 없는 외동딸이지만 결국 의지할 곳 없는 전교 왕따로 살게 되면서 스스로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렇지만 결국 자신을 향한 작은 애정 표현 하나에도 무너져 버리는 순수한 중학생으로 감독이 바라보는 이 시대의 학생들 모습의 일부분을 표현하고자 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있어 미모는 대인관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다.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감을 주는 외모는 연애, 결혼, 취업 등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는 사회에서 유리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외모가 예뻐서 뭘 해도 사랑받고 대충해도 인정받는 ‘이유리’가 세 번째 캐릭터이다. 뭐든지 열심히 해도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비호감 외모의 ‘양미숙’과 대충 해도 사랑 받는 예쁜 여자 ‘이유리’라는 상반되는 두 캐릭터의 대비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외모 지상주의를 리얼하고 유쾌하게 풍자하고자 하였다. 모든 걸 다 가졌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던 이유리 역시 사랑에 상처받고 사랑에 자신 없는 캐릭터로 묘사되고 있다. 외모가 예쁘고 모든 남자 선생님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주인공 양미숙의 질투의 대상 이지만 본인은 정작 매번 사랑에 실패하고 남자들한테 상처받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인물로 끝났다고 생각하던 서 선생의 전화한통에 달려 나가고 서 선생과의 채팅인줄로만 알고 양미숙, 서종희가 원하는 채팅내용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모습에서 그녀는 사랑에 집착하고 있고 사랑 앞에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완벽할 것만 같았던 외모에서는 볼 수 없는 내면의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사랑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이유리’라는 캐릭터를 통해서도 곁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람마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를 엿 볼 수 있다.

네 번째 캐릭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매듭짓는 인물로 서종희의 엄마이자 서종철의 아내인 ‘성은교’라는 캐릭터이다. 벨리 댄스 학원 원장으로 8살 연하의 남편과 사는 여자로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요구하게 되나 얹히고 설킨 이들의 이야기에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인물이기도 하다. 어

학 실에 모여 자신은 교단에 앉고 나머지 인물들은 학생들이 앉아있는 곳에 앉히는 모습에서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자신감을 엿 볼 수 있으며 야한 얘기가 오고가는 상황에서 종희의 헤드셋 작동을 off로 돌리고 자신의 출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딸의 말에 “엄마가 가르쳐줄게”라는 말로 안도할 수 있게 하는 모습 등에선 엄마로써의 모성애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따뜻한 면을 가진 반면에 모든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하나하나 따져 가며 풀어나가는 모습과 종희와 미숙의 계략을 모두 알고서도 모르는 척하고 사건을 풀어나가는 모습에서 이성적이고 냉소적이며 현실적인 사고를 가진 캐릭터로 볼 수 있다. 이 주요인물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미쓰 홍당무”속 주요 여성 인물들의 성격을 분석하였으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나 성격들이 영화 속 캐릭터로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제 3 절 캐릭터 표현

#### 1) 메이크업에 의한 캐릭터 표현

① 양미숙 - 얼굴, 목, 머리, 가슴 부위의 피부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질병인 안면 홍조증을 가진 캐릭터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얼굴색이 변하는 캐릭터이다. 이러한 양미숙의 안면 홍조증을 표현하는데 메이크업의 초점을 맞춰서 캐릭터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평상시에는 기본적인 스트레이트 메이크업으로 캐릭터를 표현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얼굴색을 표현하기 위해 붉게 되는 정도를 4단계로 나누어 실제 배우의 얼굴에 단계별로 표현하였으며 이를 화면상에서 매끄럽게 보여주기 위해 자연스러운 얼굴색이 나올 수 있도록 컴퓨터 그래픽(CG)을 이용하였다.

먼저 양미숙의 얼굴에 홍조증이 생기지 않은 평상시 모습의 메이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양미숙의 평상시 모습은 담당 배우인 공효진의 얼굴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하였으며 비호감인 캐릭터의 외모적 성격을 고려하여 시행하였다. 먼저 스킨, 로션부터 수분크림까지는 본인이 바르고 현장에 오면 그 뒤 파운데이션부터는 분장사가 담당하여 시행하였다.

파운데이션은 샌드 베이지 톤의 리퀴드 타입을 사용하였으며 배우 본인의 피부 톤에 맞춰 가볍게 발라주었으며 건조한 배우의 피부타입으로 파우더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눈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눈썹에 살짝 메우는 정도로 표현하였으며 이때 검정색의 아이 부로우 펜슬을 사용하였으며 너무 강하지 않게 표현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아이섀도는 하지 않고 아이라인만 본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살짝 그려주었으며 볼터치나 립 등에서도 컬러감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비 호감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기도 했으며 홍조증이 생겼을 때 어색함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

베이스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	양미숙의 평상시 모습
 <p>sand beige liquid foundation</p>	 <p>eye brow / gel pencil      eyeliner</p>	
<p>배우의 실제 피부 톤에 맞는 샌드 베이지 톤으로 파운데이션 브러시를 이용하여 바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브로우 : 배우 본인 눈썹 색으로 자연스럽게 매꾸는 정도로 그려줌.</li> <li>아이라인 : 눈의 밸런스만 맞춰주는 정도로 살짝 그려줌.</li> </ul>	<p>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하고 비호감적인 외모로 만들기 위해 모든 컬러를 배제해서 표현함.</p>

[표 1] 양미숙의 평상시 메이크업

다음은 양미숙의 홍조 증을 보였을 때 분장과정을 나타내고자 한다. 먼저 본격적인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배우와 분장사, 감독, 촬영감독, CG 실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사전 단계별 테스트를 하여 정하였으며 단계별 붉은 정도와 단계별 필요한 재료는 [표 2]와 같다.

단계	표현 방법	재료	도구	안면 홍조증 표현 단계
1 단계	볼 주변만 붉은 기 유지	cream color red	latex sponge	
2 단계	볼, 이마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붉게	cream color red	latex sponge	
3 단계	레드컬러로 전체적으로 붉게 표현한 후 머문 컬러로 광대, 이마, 콧등 위주로 표현	red / maroon	latex sponge	
4 단계	3단계와 같은 방법으로 베이스를 깔아준 후 블랙스폰지로 불규칙하게 찍어서 퍼屠杀 표현	red / maroon	latex / black sponge	

[표 2] 양미숙의 안면 홍조 증 표현 단계

붉게 표현하기 위해 라이닝컬러 중 레드컬러를 셀이 작은 스펜지를 이용하여 가볍게 두들겨 줬으며 이때 라이닝컬러가 뭉치지 않고 셀의 느낌이 피부에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강하게 두들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시행하였다. 1단계부터 4단계 까지 모든 부분을 스펜지로 표현하였고 단계가 높아 질수록 레드와 머룬 컬러의 라이닝을 섞어 붉은 기 안에서도 강하고 연함을 주었으며 4단계에서 퍽줄표현을 위해서는 라이닝컬러 머룬 컬러를 블랙 스펜지를 이용해서 가볍게 두들겨 표현하였다. 이러한 4단계는 극도로 흥분하거나 극한 감정을 드러낼 경우에만 사용하였다.

극의 중, 후반부 양미숙과 서종희가 동맹을 맺은 후 점점 초췌해져 가는 장면에서는 시간경과에 따라 다크 서클을 점점 진하게 하여 초췌해지는 정도를 나타내 주었고 후반부로 갈수록 초췌함이 극에 달하게 되고 입술이 하얗게 트는 설정까지 주어 실제 사람이 초췌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표현함으로써 극의 몰입도를 한층 더 높여주었다. [표 3]은 양미숙이 극 중에서 점점 초췌해져 가는 단계와 사용하는 재료와 표현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크 서클은 라이닝컬러의 다크 브라운 컬러를 이용하여 실제 사람에게서 생기는 다크 서클 위치를 중심으로 눈 밑 움푹 들어간 부분에 컬러의 강도에 따라 초췌함의 정도에 차이를 두었으며 입술은 인체에 무해한 풀을 이용하여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 느낌을 표현하였다. 입술이 트는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많은 재료가 있으나 각질이 일어난 느낌을 내기위해 인체에 무해한 풀을 이용하였다. 이때 다크 서클은 손으로 가볍게 두들겨서 표현할 수도 있으며 스펜지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양미숙 캐릭터는 손으로 가볍게 두들겨서 표현하였다.

단계	표현 방법	재료	초췌한 메이크업 완성
1단계	다크 서클만 연하게 표현	dark brown	
2단계	다크 서클을 더 진하게 표현	dark brown	
3단계	진하게 내려온 다크 서클과 입술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게 표현	dark brown / latex glue	

[표 3] 양미숙의 초췌한 메이크업

② 서종희 –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자기한테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애가 강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캐릭터이다. 영화 속 이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그 당시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모든 아이템들은 배제시켰으며 얼굴에 주근깨를 더해줌으로써 자기애가 강한 내면적인 성격과는 다른 외모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반합창단체복에 달려있는 리본이 촌스러워서 싫다며 안하겠다고 하다 결국 합창단에서 제외되고, “애들이 저랑 같이 안 할려구 해요. 전한테 열등감 느끼나 봐요!”라는 대사를 하는 부분에서 자신이 친구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인물이지만 외모는 주근깨라는 콤플렉스일 수 있는 부분을 가진 열등한 인물로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표 4]는 극 중 캐릭터 서종희의 메이크업 한 모습이며 이러한 모습을 만들기 위한 분장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베이스 메이크업	주근깨 분장	서종희의 평상시 메이크업
 BB cream	 brown make-up pencil	
화장기 없는 중학생 사춘기 소녀의 풋풋한 피부표현을 위해 BB크림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얇게 표현.	눈 밑 부분부터 광대 뼈 위주로 주근깨를 그려주었으며 불규칙하게 크기나 진하기도 다르게 표현.	전교 왕따인 캐릭터 설정을 살리기 위해 제품을 이용한 컬러와 라인 등을 배제시키고 표현.

[표 4] 서종희 평상시 메이크업

서종희라는 캐릭터를 서종희답게 표현하기 위해 모든 색조 메이크업은 배제하였으며 주근깨와 앞머리 연출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하였다. 먼저 스키н, 로션을 포함한 모든 기초 단계는 매우 본인이 하고

분장실로 왔으며 중학생이라는 극 중 직업을 고려하여 농도가 짙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기보다 가벼운 발림을 보여주기 위해 BB크림을 사용하였으며 가볍게 파우더로 두들겨서 유분 감을 없앤 후 브라운 색의 펜슬을 이용하여 주근깨를 찍어주었다. 간혹 뾰루지가 생기는 배우의 피부타입을 고려해 뾰루지가 생겼을 경우 컨실러로 커버해 주었으며 이야기가 전개될 수록 양미숙과 초췌해지는 정도를 비슷하게 설정하여 표현하였다. 초췌함을 표현하기 위한 재료는 양미숙과 동일하며 [표 5]는 초췌해져가는 정도에 따른 메이크업이 변화된 모습이다. 양미숙과 마찬가지로 정도에 따라 1, 2, 3 단계로 지정하겠다.

단계	표현 방법	재료	초췌한 메이크업 완성
1단계	다크 서클만 연하게 표현	 dark brown	
2단계	다크 서클을 더 진하게 표현	 dark brown	
3단계	진하게 내려온 다크 서클과 입술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게 표현	  dark brown / latex glue	

[표 5] 서종희의 초췌한 메이크업

③ 이유리 - 현 시대의 외모지상주의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로 뭘 해도 사랑받고 대충해도 인정받는 캐릭터이다. 주인공 양미숙의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있지만 그런 양미숙한테 자신의 고민거리 등을 얘기하고 자신의 집에 불쑥 들어온 양미숙을 받아주는 모습 등 다양한 면에서 착하면서 어수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캐릭터를 위한 메이크업은 최대한 깨끗해 보이는 피부와 최대한 예뻐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여 시행하였으며 교사라는 단정함을 원하는 직업적 특성상 과한 컬러를 사용하진 않았으며 매끄러운 피부표현에 중점을 두고 립과 가벼운 볼터치위주의 컬러감을 부여하였다. 배우 본인이 따로 구한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닌 관계로 파운데이션 제품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도록 하겠다. [표 6]은 극 중 이유리의 메이크업한 모습들이다. 색조는 핑크계열의 연한 발색을 보여주는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블랙과 브라운을 조화롭게 믹스시켜 사용하였으며 눈을 떴을 때 쌍꺼풀 라인이 드러나는 배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라인은 점막 위주로 얇게 표현하였다.

아이 메이크업	볼 & 립 메이크업	이유리의 평상시 메이크업
 pink eye shadow	 pink blusher / pink lip gloss	
아이 셰도우로 컬러가 너무 뒤지 않으며 밝은 컬러를 사용하여 이유리의 순박한 느낌을 표현.	발색이 진하지 않은 핑크 계열의 볼터치와 립글로스로 여성스러움을 더하고자 함.	전체적으로 진하지 않은 컬러감을 부여하고 밝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함.

[표 6] 이유리의 평상시 메이크업

④ 성은교 - 서종희의 엄마이자 서종철의 아내로써 남편보다 8살 많은 연상의 와이프이기도 하며 벨리 댄스 학원의 원장이다. 말수가 많지 않고 냉철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로써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도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미쓰 홍당무’를 촬영할 당시 성은교 역의 배우의 얼굴에 있는 잡티들을 커버하기 위해 커버력이 좋은 크림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전체적으로 얇게 발라주고 잡티 있는 부위를 중점으로 살짝 두께 감 있게 덧발라 주었다. 자칫 잘못하면 덧바른 부분이 밀릴 수 있기에 컨실러를 따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크림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덧발라 주었다. 커버한 부분이 밀려서 닦이지 않도록 주의 하며 파우더로 고정시켜 줬으며 촬영하는 중간 중간 체크해서 메이크업을 수정해주었고 눈썹은 배우 본인의 눈썹을 그대로 표현해 주었으며 차가운 느낌에 중점을 두어 색조보다는 아이라인을 눈매의 앞과 뒤를 빼주고 마스카라를 하여 매서운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입술은 색감보다는 누드 톤으로 립글로스의 반짝임만 조명에 따라 비춰지게 표현하였다. 다음은 성은교 캐릭터를 위해 사용한 메이크업 재료들이다. 샌드 베이지 톤의 크림타입의 파운데이션 제시하고 눈매의 앞, 뒤의 길이를 연장해서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보다 수정이 쉬운 젤 타입의 아이라이너를 선택하고 기본적인 블랙마스카라를 선택하여 시행하였다. [표 7]은 성은교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메이크업을 위한 재료와 완성된 메이크업을 제시하는 자료로써 성은교의 평상시 메이크을 볼 수 있다.

베이스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	성은교의 평상시 메이크업
 sand beige cream foundation	 gel black eye liner / black mascara	
커버력이 좋은 크림타입의 파운데이션으로 배우 얼굴의 잡티를 커버해줌.	블랙아이라인과 마스카라로 눈매를 잡아줌으로써 냉정하고 차가운 성격을 표현하고자 함.	전체적으로 차가운 분위기가 표현되도록 표현하기 위해 세미 스모키 타입으로 표현하고자 함.

[표 7] 성은교 평상시 메이크업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영화 속 메이크업은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성격을 묘사하는데 집중하였으며 요소 하나하나가 포인트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이미지 회의를 통한 콘셉트더라도 실제 배우의 이목구비에 맞춰서 표현함으로써 캐릭터를 완성 시킬 수 있었다.

## 2) 헤어스타일 연출에 따른 캐릭터 표현

① 양미숙 - 극 중 양미숙은 1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과거와 현재 중학교 교사로서 모습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현재 모습에서는 캐릭터의 심리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극 중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곱슬머리의 성향 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디테일하게 표현하였다.

10년 전 양미숙을 표현하는 시나리오 내용을 보면 '성난 곱슬머리'로 묘사되어 있다. 고등학교 시절엔 현재의 모습과 비교 점을 두기 위해 단발머리로 길이를 정하였고 곱슬머리 표현을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던 파마머리에 조금 더 억세고 부스스한 느낌을 주고자 볼륨매직기로 가닥가닥, 일정함을 주지 않고 들쑥날쑥하게 퀄을 잡아 주었으며 훨씬 어렸을 외모를 가정하여 동일인물에게서 줄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앞머리를 연출하였고 마찬가지로 앞머리도 곱슬 느낌을 위해 퀄을 살짝 씩 넣어 주었다.

성인이 된 후 극 초반에는 과거와 곱슬 느낌은 크게 차이 나지 않게 표현하였고 시간경과와 과거, 현재의 차이를 두기위해 길이만 더 길어져있는 모습으로 연출하였다. 촬영 스케줄 상, 머리를 기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상의 탑 부분부터 연결해서 사용가능한 반 가발을 착용하여 영화상 현재의 긴 머리를 연출하였으며 성난 곱슬머리 연출을 위해 과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퀄을 잡아서 헤어스타일을 완성하였다. 배우 본인에게 있던 앞머리를 감추기 위해 부분 인모 퍼스에 레이어 커트로 층을 내서 퀄을 잡아준 다음에 부분 부분 모발에 고정하여 전체적으로 앞머리가 층이 나져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연출을 하였다. 극 초반에 양미숙이 하고 나온 헤어스타일로 상황에 따라 반 묶음을 하기도 하였으나 성난 곱슬머리의 느낌을 배제시키진 않았다.

## 미숙의 헤어스타일 기본 콘셉트

10년 전 모습	현재 모습
	
뱅스타일의 앞머리 설정을 통해 현재와 차이를 뒀으며 앞머리까지 스스로하게 퀄을 넣어 성난 곱슬 머리를 연출하고자 함.	부분 가발을 이용하여 길이를 연장하여 과거와 차이를 줬으며 과거 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하게 퀄을 넣어 성난 곱슬 머리를 연출.

[표 8] 양미숙의 헤어스타일 기본 콘셉트

극의 중반부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서 선생님한테 바람맞고 대신 유리 선생님과 연애 얘기를 하는 끝부분에 ‘미숙, 유리의 긴 생머리를 슬쩍 만져보더니 몸서리친다.’<sup>35)</sup> 이란 지문을 보면 미숙은 유리의 생머리가 삶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이후로 유리와 똑같은 머리스타일을 하고 나타난다. 이는 결국 예쁜 사람처럼 되고 싶고 서 선생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양미숙의 생각을 엿 볼 수 있다.

처음엔 이유리처럼 하기위해 단발로 머리를 자르고 생머리로 머리를 펴게 되지만 삽질하는 동안 훌린 땀으로 인해 곱슬 기가 살아나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에 곱슬 기가 생기는 등의 묘사로 양미숙이 어쩔 수 없는 곱슬머리라는 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

35) 시나리오 본문 p14, S#25

히 해도 안 된다는 미숙의 마인드를 보여주는 한 예로 생각할 수 있다. 생머리 단발을 연출하기 위해 반 가발과 부분 가발을 떼어내고 배우본인의 모발을 드라이로 펴서 이유리와 같은 스타일로 연출하였다. 극 중 시간이 경과되고 땀을 흘리는 등의 상황 설정에 따라 점점 곱슬 기가 살아나는 등의 변화를 통화를 통해 상황에 따른 인물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 8]은 극 중 양미숙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이며 드라이로 전체적으로 펴주고 땀으로 젖는 부분이나 곱슬 기가 살아나는 부분은 상황에 맞게 컬을 잡아줘서 곱슬 기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은 감독의 의도에 맞춰 연출하였으며 극의 흐름상 설정해줘도 좋을 것 같은 경우들은 배우와 감독과 분장사가 상의하여 연출하기도 하였다. 땀과 같은 외부 상황 설정 없이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런 헤어스타일이 곱슬머리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또 극 중 마지막으로 서 선생에게 자신에 대한 마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상황에선 비 호감 설정들을 모두 배제하고 평범한 여자로 보이기 위해 머리를 하나로 묶었다. ‘그저 한순간이라도 사랑받고 싶고, 너무 사랑해보고 싶은 평범한 여자의 얼굴이다.’<sup>36)</sup>는 지문처럼 평범한 스타일을 연출하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마직 막으로 ‘이듬해 봄’이라는 자막을 통해 계절이 바뀔 만큼의 시간 경과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본래의 미숙의 성난 곱슬머리로 돌아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스스하게 컬을 넣어주었다. [표 9]를 통해 상황에 따른 미숙의 헤어스타일 변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36) 시나리오 본문 S#164

### 상황에 따른 양미숙의 헤어스타일 변화

상황	표현 방법	완성된 헤어스타일
이유리처럼 보여주고자 하는 상황	부분 가발을 떼어내고 배우 본인 모발을 드라 이로 생머리처럼 펴서 연출.	
극 중 인물의 행동에 의해 땀이 나는 상황	생머리를 기본으로 하고 땀이 나는 피부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헤드라인 위주로 컬을 넣어 곱슬기를 연출.	
자신을 향한 서 선생의 마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상황	평범함 여자로 보이고자 하여 과하게 꾸미지 않고 단정하게 하나로 묶어서 연출.	
계절이 바뀌는 등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황	다시 돌아온 성난 곱슬 머리를 보여주기 위해 컬을 넣어 부스스한 단발머리로 연출.	

[표 9] 상황에 따른 양미숙의 헤어스타일 변화

② 서종희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기애가 강한 인물이고 자신이 친구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아도취 형이지만 외형적인 요소들은 친구들보다 우월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는 스타일을 기본 콘셉트로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중·여고생들 사이에서 유행한 아이템이 않는 촌스러운 똑딱 핀 등을 이용하여 머리를 찔러 올렸으며 최대한 월등한 외모를 만들기 위해 앞머리 양을 조금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찔러 올려서 연출하였다. 공격적인 캐릭터의 성격을 보여주고자 짧은 단발머리를 매직기로 펴서 머리를 묶었을 때 묶인 부분이 뾰족한 형태가 될 수 있게 묶이는 위치를 정하여 연출하였다. 이야기 흐름상 주어진 상황에서도 묶인 머리의 양과 흘러내리는 머리 양을 조절하여 비호감이며 전교 왕따인 인물의 설정을 효과적으로 연출하였으며 기본 콘셉트로 정한 묶은 머리와 핀 착용은 변함없이 유지하였다. [표 10]은 서종희 캐릭터의 기본 헤어스타일 콘셉트를 보여주는 자료이며 [표 11]은 상황에 따라 설정된 헤어스타일을 보여주는 자료로 기본스타일을 유지한 상태에서 변화를 주었으며, 상황에 따라 설정을 넣어 더 지저분하게 연출하기도 하고 묶인 머리가 풀어질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였다.

## 서종희의 기본 헤어스타일 콘셉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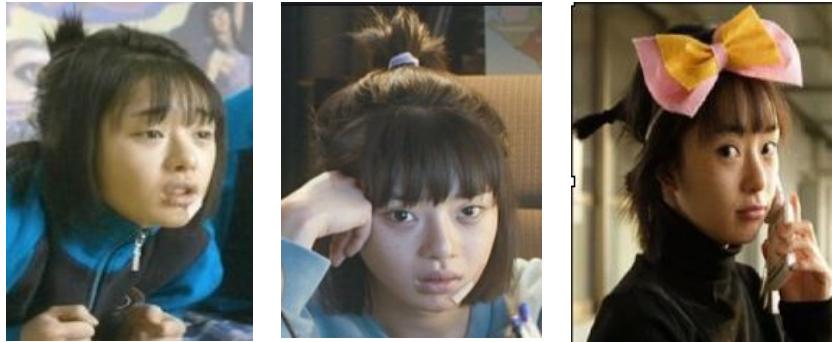
매직기로 단발 기장의 모발을 펴서 머리가 뚫렸을 때 뾰족하게 나오도록 설정. 똑딱 핀이나 적은 양의 앞머리 설정 등을 통해 또래 아이들과 다른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왕따인 인물의 설정을 드러내고자 함.



[표 10] 서종희 캐릭터의 기본 헤어스타일

## 상황에 따른 서종희 헤어스타일

뚫렸을 때 뾰족하게 나오는 기본 콘셉트에서 앞머리와 주변머리의 양을 조절하여 상황에 맞게 연출.



[표 11] 상황에 따른 서종희 헤어스타일

③ 이유리 - 첫 등장은 단정한 선생님 이미지의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여 등장하였다. 성난 곱슬머리인 양미숙과는 대조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이유리는 찰랑거리는 생머리로 연출하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양미숙과 동거를 시작하고 서 선생님과의 관계로 인해 맘고 생을 하고 조금 성숙해진 듯 한 모습을 보이면서는 단발머리에 웨이브를 넣어 성숙한 느낌을 연출하였다.

이유리의 헤어스타일	
극 초반	변화 된 헤어스타일
선생님으로써 단정한 헤어스타일 연출.	사랑에 상처받고 조금은 성숙해진 듯한 모습을 보이지기 위해 펌을 통한 웨이브 연출.
	

[표 12] 이유리 헤어스타일의 변화

[표 12]는 이유리의 헤어스타일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써 이 두 가지 헤어스타일에서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로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었다. 앞의 두 캐릭터인 양미숙과 서종희처럼 캐릭터의 성격이나 심리변화에 의한 설정을 넣은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아니라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 따라 단순히 다른 스타일을 연출하였기에 이 외의 스타일은 자료로 제시하지 않았다.

④ 성은교 - 나이가 40대 중년이고 벨리 댄스 학원 원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새치로 하얀 머리, 볼륨 있는 몸매, 우아하다’<sup>37)</sup>라는 시나리오의 지문에 따라 우아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었지만 캐스팅된 배우의 이미지와 성은교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성격이 잘 맞아들어 우아함을 강조하기보단 도시적이고 이지적인 보브 커트 스타일을 콘셉트로 하여 부분 헤어화이트와 실버그레이이라는 흰머리 칠전용 제품으로 흰머리 설정을 넣어주었다. 전체적으로 가닥가닥 소량의 머리카락만 잡아 흰 칠을 해줌으로써 흰머리를 멋스럽게 연출하고자 하였다.

많지 않은 분량인데 잣은 헤어스타일의 변화는 관객이 캐릭터에 집중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등장하는 분량이 많지 않은 부분과 짧은 커트 인 점을 고려하여 스타일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았다.



[표 13] 성은교의 헤어스타일

이처럼 한 인물이 이야기 흐름상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도 있으며 이런 변화들은 관객으로부터 이야기를 끌고나가는 캐릭터에 집중

37) 시나리오 본문 S#5

하는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분량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변화 없이 기본 스타일을 유지하는 방법 또한 캐릭터에 집중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 3) 의상에 의한 캐릭터 표현

① 양미숙 - 보기에도 답답한 검은색 티셔츠와 무릎 아래까지 길게 내려오는 스커트, 두껍고 투박한 느낌의 코트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양미숙’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 호감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양미숙’의 스타일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나머지 단단한 방어벽을 치고 있는 그녀의 우울하고 고독한 상태를 두꺼운 코트와 검은색 의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요소에 의한 목도리 같은 아이템들도 두꺼운 니트 소재의 목도리를 틈 하나 보이지 않게 칭칭 감고 있는 모습도 양미숙의 방어벽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그녀의 성격은 과거 의상에서도 볼 수 있다. [표 14]는 10년 전 과거 의상으로 이때도 현재처럼 목까지 올라온 채도가 낮아서 아주 탁한 그린색의 오리털 점퍼를 목까지 잡가서 입고 있는 모습과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의 치마에서도 그녀의 닫혀 진 성격을 엿 볼 수 있다.

양미숙의 10년 전 의상	
상의	하의
탁한 그린컬러와 목까지 단추로 잠궈서 답답하고 폐쇄적인 느낌을 연출.	다크한 브라운의 무릎아래까지 내 려오는 기장의 치마를 착용함으로 써 답답한 느낌을 연출.
	

[표 14] 10년 전 양미숙의 의상

### 양미숙의 폐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의상스타일

기본 스타일	검정 목 폴라 티셔츠와 무릎까지 내려오는 기장의 치마	
외투	무릎까지 내려오는 기장의 하나로 된 원피스 타입의 코트로 연출.	
밸리댄스 운동복	허리라인을 드러내는 다른 벌리복을 입지 않고 검정색의 폴라 티셔츠로 연출.	
기타 아이템	두꺼운 니트 목도리를 둘려 매서 목 전체를 감싸도록 연출.	

[표 15] 폐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양미숙의 의상스타일

[표 15]는 양미숙의 양미숙의 폐쇄적인 성격을 의상에서 표현하고자 한 자료이며 두꺼운 모직 원단과 무채색위주의 다크한 컬러를 사용하였고 피부가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차단하도록 설정하여 의상을 착용하였다. [표 16]에서는 양미숙의 심리에 따른 의상스타일을 보여주는 자료로써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유리 옷을 입고 나가는 모습과 피부과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에서는 점점 색이 밝아지며 피부를 드러내는 등 점점 오픈되어 가는 양미숙의 심리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

캐릭터의 심리를 보여 주는 의상 스타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고자 하는 여자의 심리를 보여주고자 이유리의 원피스를 착용	
피부과 의사를 겨우겨우 찾아가 고백하는 당당해지고 하는 심리를 보여주고자 네크라인이 드러나는 V넥 디자인과 무채색 컬러에서 밝아진 컬러를 착용	

[표 16] 미숙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는 의상

[표 16]의 의상을 살펴보면 이유리 와의 동거 후 이유리가 입었던 원피스를 입고 나가며 이유리를 따라 하는 즉,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 서종철과 이유리가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나가면서도 예쁜 사람의 옷을 입고 나가는 모습에서는 예뻐지고 싶은 여자의 본성을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의 치마에 검정스타킹을 신고 다녔던 양미숙이 처음으로 무릎위로 올라오는 길이의 치마와 검정 스타킹 없이 맨살을 드러내고 치마를 입은 차림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다니던 피부과 의사를 수소문 끝에 찾아가 ‘난 니가 참 마음에 듈다!’<sup>38)</sup>라는 적극적인 대사를 하는 엔딩장면으로 영화 내내 보던 양미숙의 검정 폴라 티와 두터운 외투는 찾아 볼 수 없고 V넥 연보라색 니트를 입음으로써 양미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된 심리를 반영한 의상 콘셉트라고 볼 수 있다.



---

38) 시나리오 본문 S#174

② 서종희 - 중학생으로 이야기가 이뤄지는 배경이 학교라는 점과 대부분 사건이 방과 후에 이뤄지는 점들을 감안하여 교복에 외투를 걸치는 것이 콘셉트다. 그 외 가족들과 식사자리나 마지막 엔딩장면에서는 사복차림으로 나오나 몇 부린 듯 한 느낌이 전혀 없이 언뜻 보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설정하기위해 화려한 컬러 보다는 칙칙해 보이는 컬러를 사용한 의상을 입었다.

종희가 착용한 의상		
기본	중학생인 주인공의 특성상 주로 교복을 착용함.	
외출 시	채도가 낮은 핑크색에 체크무늬가 크게 들어간 자켓을 입어 유행을 따르지 않는 중학생의 못브을 보이고자 함.	

[표 17] 종희가 착용한 의상

③ 이유리 - 장미숙이 무겁고 어두운 컬러와 답답한 스타일을 보여줬다면 반대로 이유리는 전체적으로 아이보리나 연 베이지 계열 컬러의 의상이 주류를 이루며 시폰 소재로 하늘거리는 원피스 형태의 의상을 많이 착용하였다. 이유리가 입는 의상컬러나 소재, 스타일 등은 여성스럽게 보이고자 하면 누구나 한번쯤은 선택했을 법한 아이템으로 답답했던 장미숙 스타일과는 대조를 이뤄 컬러에서 오는 밝고 순박한 이미지가 인물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캐릭터에 집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의상 컬러를 통한 이유리 캐릭터 표현

아이보리나 연 베이지 컬러의 의상을 착용함으로써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고자 함.



[표 18] 의상컬러를 통한 이유리 캐릭터 이미지 표현

### 의상의 소재와 스타일에 따른 이유리 캐릭터 이미지 표현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원피스 스타일의 의상을 주로 착용하였으며  
쉬폰같은 얇은 소재의 의상을 선택함으로써 여성스러움을 강조.



[표 19] 소재와 스타일에 따른 이유리 캐릭터 이미지 표현

④ 성은교 - 우아하고 도시적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강한 컬러나 강한 무늬 또는 독특한 언밸런스 패턴의 스타일을 콘셉트로 정하였으며 악세서리나 다른 소품들을 많이 착용하지 않아도 의상하나만으로 멋스러울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 성은교의 의상 스타일

흑백의 대조적인 무늬가 있거나 언밸런스 커트의 패턴을 응용한 디자인 등을 착용함으로써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뚜렷하면서도 강한 성격을 보여주고자 함.



[표 20] 성은교의 의상 스타일

## 제 4 장 유사장르 속 캐릭터 표현 사례

### 제1절 영화 “써니” 속 캐릭터 표현

영화 ‘써니’는 2011년에 개봉한 코미디 영화로써 ‘미쓰 홍당무’와 같은 장르로써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주인공 7명의 캐릭터들의 모습을 잘 표현한 영화이다.

전라도 별교 전학생 나미는 긴장하면 터져 나오는 사투리 탓에 첫날부터 날라리들의 놀림감이 된다. 시골에서 올라온 티를 내지 않으려고 잔뜩 신경 쓰고 올라왔지만 너무 세련된 친구들에게 위축당하고 사투리 때문에 놀림 받을까 위축된 나미를 범상치 않는 포스의 친구들이 어리 버리한 그녀를 도와주게 된다. 그들은 진덕 여고 의리 짱 하춘화, 쌍꺼풀에 목숨 건 못난이 장미, 욕 배틀 대표주자 진희, 괴력의 다구 발 문학소녀 금옥, 미스 코리아를 꿈꾸는 사차원 복희 그리고 도도한 열음공주 수지.

나미는 이들을 따라서 경쟁그룹 ‘소녀시대’와의 맞 짱 대결에 합류하게 되고 이 때 할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사투리 욕을 하며 빙의 된 모습을 연출하게 되고 이를 본 상대멤버들이 겁먹고 도망가게 되면서 이들의 멤버에 들어오게 된다.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서 그룹을 ‘써니’로 짓고 그들만의 추억을 만들어 가게 된다.

학교 축제 때 선보일 공연을 야심차게 준비하지만 축제 당일,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성인이 된 후 병원에 입원한 춘화와 우연히 만난 나미가 춘화의 부탁으로 써니 멤버들을 하나하나 찾게 되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며 결국 춘화의 장례식장에 모두 모이게 되고 고등학교 축제 때 하려던 공연을 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난다.

25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각자의 통통 튀던 매력을 가진 친구들이 어떻게 변해있을지를 상상하게 되고, 잘사는 주부, 보험 파는 아줌마, 수단 좋은 사업가, 술집 종업원, 펍박받는 며느리.. 등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들로 성장해 있다는 설정을 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친근함을 주었고 잊고 있던 과거의 추억을, 친구를 다시 한 번 생각나

게 했던 영화로 엄청난 관객 수를 끌어 모았던 영화이다.

또 ‘써니’가 관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과거 80년대 유행하던 의상, 가방, 헤어 등을 리얼하게 재현함으로써 공감 대를 잘 형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소들을 각 캐릭터마다 다양하게 접목 시킴으로써 7명의 캐릭터의 개성이 잘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자는 영화 ‘써니’ 속 주요 인물인 7명의 캐릭터 중 이야기를 끌고 가는 중심에 있는 임나미와 하춘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며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영화 흐름의 특성상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의 임나미와 과거의 임나미의 캐릭터에서 살펴보면 두 인물 모두 영화에서 가장 많이 쓰는 스트레이트 메이크업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과거 임나미는 시골에서 올라와 전학 온 아이로 전라도 사투리가 부끄러운 아이이며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 1,2등하고 사생대회에서 상도 휩쓸었던 아이로 묘사 되고 있다.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는 수줍은 아이이며 소심한 듯 하면서도 자기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자신의 스타일이 서울스타일인 친구들과 차이나는 지에 대해서도 신경 쓰는 사춘기 소녀로 표현되기도 했다.

현재의 임나미는 남편 내조하고 자식 뒷바라지에 여념 없는 전형적인 가정주부로써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25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오랜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에게 여전히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영화 속에서 표현된 캐릭터를 살펴보면 과거와 현재 임나미 모두 기본 스트레이트 메이크업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고등학생 임나미는 배우의 하얗고 맑은 피부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베이스를 최대한 얇게 발라주고 아이라인이나 아이섀도 등의 다른 부분들은 배우의 순수해 보이는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주고자 생략한 것으로 보이고 입술도 립 밤 같은 립 케어 제품을 사용하거나 광택이 심하지 않은 립글로스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 중간 중간에 수줍거나 당황스러울 때 나미에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띠는 부분에서는 ‘미쓰 홍당무’에서

의 홍조 증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처럼 먼저 분장을 한 부분을 카메라로 찍어서 CG로 마무리 작업을 하여 영화가 진행되는 도중에 얼굴이 붉게 올라올 수 있도록 표현하여 영화의 재미를 더 하였다.

닭 벼슬 머리, 앞가르마 등 그 시대를 대표하는 헤어스타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미에게는 뱅 스타일의 앞머리와 반듯하게 자른 단발머리로 설정하였고 다른 친구들은 땡땡이나 줄무늬 티셔츠, 또는 형형색색의 바지들을 설정한 것에 반해 나미는 노란색이나 녹색 같은 안정된 색감을 주로 사용한 의상을 선택하거나 그 시대 유행하던 청청스타일을 주로 설정하였으며 컬러가 들어간 머리띠 등을 이용하여 그 시대 유행패턴을 놓치지 않고 표현하였다.

과거의 차분함이 어느 정도 반영된 현재의 나미는 어려보이고 화사해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을 선택하여 표현하기 위해 베이스 메이크업은 배우 본인의 톤보다 반 톤 정도를 밝게 해줌으로써 얼굴이 밝아 보이는 효과를 주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얼굴 톤이 어두운 사람보다는 밝은 사람이 더 어려보이고 젊어 보인다는 메이크업의 이론적 자료들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반 톤 정도 밝게 베이스 작업을 함으로써 얼굴과 목에서 톤 차이가 나는 것을 화면상에서 간혹 볼 수 있으나 촬영당시 조명이나 카메라 각도에 따라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분장사로써 감수해야하는 부분 중 하나이며 분장사는 화면에서 보여 지는 톤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톤 차이가 심하게 나게 되면 어떤 컬러가 올려 진다고 해도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되며 현재 임나 미정도의 톤 차이는 촬영당시 있을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화사해진 피부 톤에 밝은 연 핑크 컬러의 아이섀도를 사용하여 차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효과를 주었다. 애교 살 부분에도 언더 섀도를 해줌으로써 눈 밑 하이라이트를 넣어 주었고 라인이나 마스카라는 자연스럽게 본인 눈매를 중심으로 표현하였으며 입술엔 립글로스로 컬러감이 많지 않도록 내추럴하게 표현해주었다. 메이크업에서도 차분하고 여성스러움을 볼 수 있었듯이 헤어스타일과 의상에서도 여성스러움을 볼 수 있었다.

굵은 웨이브로 연출한 헤어스타일과 리본이나 러플이 들어간 디자인과  
핑크나 이이보이, 연 베이지 등의 컬러, 카디건이나 하늘거리는 블라우스  
등으로 설정하여 여성스러움이 한층 돋보일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과거 나미와 현재 나미의 캐릭터 표현에 있어서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을  
[표 21], 의상을 [표 22]과 같이 정리하였다.

	과거 임나미	현재 임나미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표 21] 임나미의 과거와 현재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표 22] 임나미의 과거와 현재 의상을 통한 캐릭터 표현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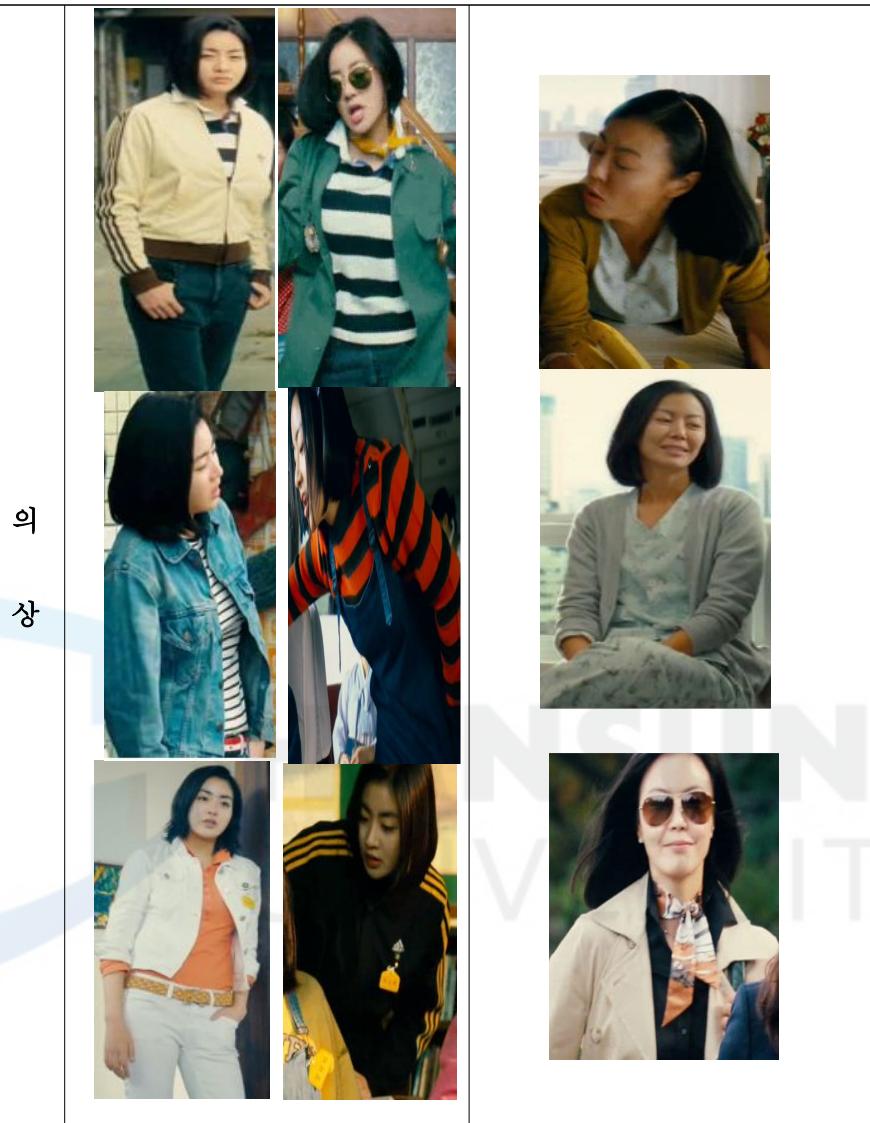
영화 속 임나미가 순하고 여성스러운 캐릭터라고 한다면 하춘화는 리더십이 강하고 의리도 있는 거칠고 남성스러운 캐릭터라고 볼 수 있다. 7명의 멤버뿐만 아니라 반에서, 학교에서도 알아주는 “짱”으로써 터프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임나미를 멤버로 영입하자고 제안하고 누군가 자신의 멤버들을 건드리는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해결하는 “써니”의 리더로써 보이시(boyish)하게 연출하였다. 현재는 죽음을 두 달 정도 남겨둔 시한부인 생으로 살고 있고 병원에 장기 입원한 환자로 등장하는 캐릭터의 상황에서 볼 때 메이크업 또한 아이 쟤도 컬러나 립 컬러 등을 주지 않고 배우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를 캐릭터로 묘사하였다. 실제 리얼리티(reality)적인 부분을 적용한다면 현재 하춘화는 암환자로써 많이 초췌하고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 등의 갖가지 외형적인 증상들을 보여줘야 하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 그립던 친구들을 다시 모이게 만드는, 마지막까지 리더로써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영화적 리얼리티적인 부분으로 과거의 모습과 거의 흡사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이로 인해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이 ‘하춘화’라는 캐릭터에 접했을 때 과거와 현재 모두 당당하고 의리 있는 멋진 이미지로만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과거 임나미의 의상이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의 옐로우나 그린계열의 컬러를 많이 사용하였다면 반대로 하춘화는 블랙과 화이트, 오렌지 컬러 등 화려하고 선이 분명한 컬러와 디자인의 의상을 선택하였다. 임나미가 부드럽고 둥근 컬러의 디자인을 선택했다면 하춘화는 짧고 끝이 뾰족한 셔츠칼라의 옷들로 설정하였다. 게다가 그 당시 남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셔츠 깃 세우고 다니던 설정을 춘화에게 부여함으로써 더욱 터프함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로 현재는 환자복이 그녀의 주된 의상이지만 그 위에 대체적으로 체도가 낮은 컬러의 카디건을 설정함으로써 죽음을 눈앞에 둔 슬프고 쳐져있을 환자로써의 감정을 이입했다고 볼 수 있다. 헤어스타일도 층이 나져있지 않은 전체적으로 똑같은 머리 길이의 원랜스 커트(one length cut)의 단발머리 이지만 임나미는 앞머리를 뱅으로 연출하여 귀여움을 표현하였다면 하춘화는 앞머리 기장까지 똑같은 단발머리에 이마 위쪽머리만 살짝 올려 고정해주는 그 시대 유행했던 닦벼슬 헤어스타일을 반영하여 연출함으로써 터프한 그녀의 성격을 엿 볼 수 있다. 하춘화의 과거와 현재 캐릭터 표현에 대한 요소는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을 [표 23], 의상을 [표 24]로 제시하였다.

	과거 하춘화	현재 하춘화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표 23] 하춘화의 과거와 현재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표 24]하춘화의 과거와 현재 의상을 통한 캐릭터 표현

## 제2절 영화 “미녀는 괴로워” 속 강한나 캐릭터 표현

2006년 코미디, 멜로로 개봉한 영화 ‘미녀는 괴로워’는 국내에서 번역 30여 만 권이 넘게 판매된 베스트셀러 일본 만화원작을 영화로 제작한 사례이다. 김용화 감독이 연출을 하였으며 김아중(강한나), 주진모(한상준), 성동일(최사장), 김현숙(박정민) 등 여러 배우들이 출연하여 호흡을 맞췄으며 2006년 화제를 모은 흥행작 중의 하나이다.

169cm, 95kg. K-1이나 씨름판에 나가도 거뜬할 체격을 가진, 그러나 한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여린 마음의 소유자 한나는 미녀가수 ‘아미’의 노래를 대신해서 불러주는 ‘얼굴 없는 가수’이며 밤에는 생계를 위해 ‘폰팅 알바’를 하는 립싱크 가수이다. ‘아미’의 음반 프로듀서이며 자신의 음악성을 인정해주는 유일한 사람 한상준을 남몰래 사랑하게 되며 짹사랑에 빠져있다. 상준의 생일파티에 초대받게 되고 한껏 멋 부리고 파티장소에 가지만 상준이 준결로만 알던 원피스가 아미의 장난임을 깨닫게 되고 똑같은 원피스를 멋스럽게 소화한 아미를 보며 다시 한 번 상처를 받게 된다. 또 우연치 않게 화장실에서 아미와 상준의 대화를 듣다 상준이 자신에게 단순히 성공을 위해 잘해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충격을 받은 한나는 폰팅을 하던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가 폰팅 사실을 미끼로 자신을 바꿔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의사는 수락하게 되고 그 이후로 한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그 이후 169cm, 48kg의 완벽한 몸매와 ‘제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아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한나 덕에 음반 활동을 중단하게 되고 상준은 아미의 공백을 매꿔 줄 상대를 찾게 된다. 그러던 상준에게 미모와 노래실력까지 갖춘 제니는 그야말로 구세주였다. 이 모든 상황을 의혹과 질투의 눈으로 지켜보던 아미는 점점 자신의 입지를 위협당하고 제니의 존재에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 제니의 뒷조사를 감행하게 되고 점점 제니를 한나로 의심하게 된다. 상준도 제니가 한나 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미모를 얻게 되면서 친구와 아빠까지 버렸던 제니는 결국 모든 사실이 세상

에 알려지게 되면서 자신의 첫 콘서트 때 모든 사실을 밝히게 된다. 하지만 진솔한 그녀의 모습에 사람들은 더 환호하게 되고 제니는 가수로써 성공을 거두게 되며 상준과의 사랑에도 성공하게 되며 결국 외모보단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의 영화이다. 영화‘미쓰 홍당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외모지상주의의 사회인 현대사회 속에서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여주인공이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코믹하게 묘사한 영화로 원작 만화에서는 주인공이 성형사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큰 갈등으로 다루어지지만 영화‘미녀는 괴로워’는 시나리오 과정을 거치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밝힐 것인가’라는 자기 정체성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 새롭게 구성하였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통해 더욱 희망적인 삶을 꿈꾸는데 힘이 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혹시 지금 내 주변의 모든 것들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싶었다”고 한다.

영화‘미녀는 괴로워’에서 강한나는 성형 전과 성형 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성형 전의 한나의 모습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말릴 새도 없이 위태하게 여자 절을 올리는 한나,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뒤뚱거리며 앉는데 육중한 몸과 뱃살 때문에 반쯤 앉다가  
그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진다. 상 위에 놓여있던 부적용 붉은 물감을  
뒤집어쓰는 선녀보살. 난감한 한나, 수습해 보겠다고 보살의 얼굴 손수건으로 닦아내는데  
점점 더 캐리의 마지막 장면처럼 악화되는 보살의 얼굴. 망연자실한 한나, 하던 행동 멈추고  
상 밑에 놓인 부적 발견한다. 아무 말 없는 보살에게 어렵게 양해 구하며 상 들어 올리는데 그 위에 놓여있던 동자승마저 떨어지며 박살난다.<sup>39)</sup>

위의 시나리오 내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95kg의 거구를 가진 그녀는 누가 봐도 부담스러운 외모를 가진 여자이다. 실제 배우에게 거구를 만들기 위해 살을 찌우라고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영화제작 당시 할리우드 특수 분장 팀이자 특수효과의 프로 스텝인 Kris Kobzina &Christopher Burgoyne을 국내 섭외하여 매일 4시간의 특

---

39) 영화‘미녀는 괴로워’ 시나리오

수 분장과정을 통해 한나라는 인물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 이러한 특수 분장 시간과 촬영 후 1시간의 분장 제거과정을 거쳐야하는 배우의 노력 끝에 강한나라는 인물이 완성되었고 이렇게 완성된 거구의 한나에게 분장 팀에서는 최대한 못생기고 비호감인 외모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한나의 첫 등장에서 보면 점쟁이에게 까지 무시당하고 사랑하는 남자와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이유가 관상 때문이라는 말을 듣는 한나는 누가 봐도 비 호감의 외모를 가진 여자다. 따라서 장점을 극대화 하고 단점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메이크업의 목적을 반대로 단점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성형 전 강한나를 평상시 모습과 가수로써의 한나의 모습으로 나눠서 비교해보고자 한다. 평상시에는 내추럴하게 메이크업을 거의 안한 듯 하게 표현했으며 가수로써 한나는 아이섀도도, 아이라인, 립까지 메이크업으로 평상시와는 다르게 꾸민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강한나가 립 싱크 가수 이긴 하지만 가수라는 직업에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며 다시 말해 강한나가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또 자신이 짹사랑하는 남자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 여자의 심리라고 볼 수 있겠다. 메이크업 이외에도 강한나의 헤어스타일의 변화와 의상의 변화에서도 이런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있다. 평상시에는 머리 안 감았냐는 오해를 살만큼 지저분하고 산발로 하고 다니고 가수로써 변신했을 때는 스타일을 잡아 편으로 고정한 모습에서 알 수 있다. 나름 꾸민 모습이래도 관객의 눈에는 지저분해 보이고 비 호감의 외모일 뿐이지만 헤어스타일의 변화나 편으로 설정하는 것도 분장사가 주인공 강한나의 디테일한 심리를 표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일자 청바지에 티셔츠나 후드 티 같은 캐주얼 의상이 평상시 모습이라면 가수로써 의상은 같은 부츠 컷 디자인에 화려하게 수놓아진 청바지와 화려한 무늬에 하늘하늘하고 통이 큰 블라우스를 통해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에 따른 성형 전 평상시와 가수로써의 모습을 다음 [표 25]에서 정리하였다.

	성형 전 평상시 강한나	성형 전 가수로써 강한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		

[표 25] 성현 전 강한나의 평상시와 가수로써 캐릭터 표현의 차이

지금까지 성현 전의 강한나의 캐릭터 표현에 관해 연구하였다면 다음은 성형 후 캐릭터 표현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95kg의 거구에서 48kg으로 변하게 되면서 ‘제니’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다. 따라서 ‘강한나’라는 성형 전 캐릭터의 이름대신 ‘제니’라는 성형 후 이

름으로 지칭하도록 하겠다. 제니는 날씬해지고 예뻐진 모습으로 바뀌면서 ‘거구 강한나’ 일 때 입고 싶었던 원피스를 구매해서 입고 거리로 나가게 된다. 사고가 나도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두가 자신에게 예쁘다는 말을 하자 본인의 외모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성형 수술 후 처음 밖으로 나왔을 때 메이크업은 아이섀도를 하지 않고 베이스에서 깨끗하고 화사하게 표현하였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성형 수술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자연 미인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대한 내추럴 한 메이크업을 선택해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헤어스타일은 강한나의 머리에서 자연스럽게 길어서 약간의 부스스함이 있지만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길러진 설정으로 한층 여성스러움을 나타내주고 있다. 강한나 시절에 입고 싶어 하던 원피스를 구입해서 입는 것을 시작으로 짧은 치마와 타이트하게 변하면서 퍼펙트한 몸매가 드러나는 스타일로 바뀌었다. 그 후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서 펄이 살짝 들어있는 핑크와 오렌지 계열의 아이섀도를 사용하였고 자연스럽게 볼터치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화사하면서 컬러가 들어가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웨이브가 들어간 헤어스타일로 여성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의상도 마찬가지로 훨씬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바뀌게 되었다. 성형 후 변화된 모습을 [표 26]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위와 같이 ‘강한나’와 ‘제니’를 통해 우리는 그녀의 심리 변화나 상황에 따른 그녀의 행동이나 감정을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에 변화를 줌으로써 알 수 있었다.

		성형 후 가수 데뷔 전	성형 후 가수 데뷔 후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								

[표 26] 성형 후 제니의 가수 데뷔 전과 후 캐릭터 표현의 차이

## 제 5 장 결 론

현대 사회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다양해졌으며 그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도 매우 다양해져 가고 있다. 대중은 빠르게 캐릭터의 이미지를 인지하고 습득하게 되면서 캐릭터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 역시 커져가고 있다. 영화 속 캐릭터가 대중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흥행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본 연구는 한국 코미디 장르의 영화 속 여성 캐릭터들이 표현된 사례를 본 연구자가 직접 분장에 참여한 영화 ‘미쓰 홍당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유사 장르 속 주인공인 여성캐릭터의 표현에 있어서 영화‘씨니’ 와 ‘미녀는 괴로워’ 두 작품을 선택하여 분석하여 캐릭터 표현을 위한 요소들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각 캐릭터 분석을 통해 성격과 캐릭터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러한 내면적인 요소들이 외형적인 요소인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추할 수 있었다.

첫째, 영화 ‘미쓰 홍당무’ 속 ‘양미숙’ 캐릭터는 안명 홍조 종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써 얼굴이 수시로 붉게 변하는 외적으로 매우 비 호감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메이크업에서는 크게 평상시 메이크업과 붉게 변했을 경우의 메이크업으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평상시에는 영화에서 자주 쓰는 스트레이트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는데 아이섀도나 립, 볼 터치 등의 컬러 적인 부분들은 제외하였으며 눈썹과 눈은 젤 타입의 아이라인으로 배우가 평소 생각하던 눈매만 잡아주는 정도로 시행함으로써 비 호감인 캐릭터의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 붉게 변할 때의 메이크업은 붉게 변하는 정도를 4단계로 나눠서 캐릭터의 감정의 차이에 따라 단계를 조정하여 표현하였다. 1단계는 볼 부분만 붉게, 2단계는 볼과 이마 위주, 3단계는 얼굴 전체적으로, 4단계는 3단계보다는 진하게 얼굴 전체적으로 표현하며 그 위에 실탏줄이 올라오는 세밀함까지 표현하였으며 CG를 이용하여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색이 변하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극 중 캐릭터의 감정을 배우의 얼굴색이 변함으로써 관객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미숙의 헤어스타일은 시나리오에 ‘성난 곱슬머리’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실제 캐릭터에 접목시키기 위해 부분 가발을 이용하여 길이에 변화를 주고 머리카락 가닥 가닥을 잡아 컬을 불 규칙적으로 잡아줌으로써 최대한 부스스하고 지저분해보일 수 있게 표현하였다. 또 예쁜 ‘이유리’ 선생님을 따라 하고자 단발의 생머리로 변했을 때는 부분가발을 제거하고 드라이로 머리를 펴서 마치 ‘이유리’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앞머리 부분부터 곱슬 거리게 함으로써 시간경과를 보여 주였고 극 중 땀나는 상황들이 주어 졌을 때는 더 많이 곱슬 거리게 만들어서 캐릭터를 완성하였다.

공격적이고 폐쇄적이며 소심하고 피해과대망상 등 주인공의 성격을 보여 주기 위해 전반적으로 어두운 컬러와 무거운 니트 소재를 사용한 의상을 착용하게 하였고 길이가 긴치마와 목까지 올라온 폴라 티를 입고 점퍼 등 지퍼가 있는 옷은 목까지 지퍼를 올려 입는 등의 설정을 하였고 이야기가 끝날 쯤엔 V넥 디자인의 연보라색 가벼운 니트의 상의를 착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변해있는 그녀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서종희’라는 캐릭터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만 본인은 자신이 친구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애가 강한 인물로 등장한다.

따라서 메이크업에서는 외모적으로 월등함을 주기 위해 주근깨를 설정하였고 양미숙과 마찬가지로 컬러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예쁠 수 있는 요소들은 제외시키고 메이크업을 하였다. 헤어스타일 또한 앞머리를 최소량만 연출하고 나머지는 올려서 핀으로 고정하고 이때 사용하는 핀도 사춘기 학생들이 잘 사용하지 않은 똑딱 핀이나 실 핀 등을 사용하여 캐릭터의 월등함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여기에 짧은 단발머리로 매직기로 펴고 질끈 묶어줌으로써 묶인 머리가 뾰족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설정하여 인물의 공격적인 성격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종희의 의상은 중학생이라는 캐릭터의 설정에 따라 거의 대부분 교복을 입어서 따로 설정이 들어간 부분은 없지만 간혹 사복차림으로 나올 경우에는 또래에서 입지 않는 스타일의 의상이나 채도가 낮

은 컬러의 의상을 착용하였다.

세 번째 우월한 외모를 가진 ‘이유리’ 캐릭터이다. 모든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뭘 해도 인정받는 캐릭터로 나오지만 정작 사랑에 우유부단하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약간 순진하게 나오는 인물이다. 누가 봐도 예쁜 인물로 표현하기 위해 메이크업에서도 최대한 화사하게 표현하기 위해 피부표현을 매끄럽게 해주고 약간의 펄이 들어가 있는 핑크나 오렌지 계열의 컬러섀도를 사용하여 아이 메이크업을 하였고 배우가 가지고 있는 눈의 특성상 아이라인은 점막에만, 마스카라는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볼 터치와 립에도 컬러를 줌으로써 화사한 메이크업을 완성하였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단정한 단발 길이의 생머리로 등장하다 이야기가 중반쯤 지났을 때부터는 사랑에 상처받고 성숙해진 듯 변하면서 웨이브 펌을 통해 성숙한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아이보리의 밝고 화사한 컬러와 하늘거리 는 시폰 소재 나 원피스 스타일의 의상을 착용하여 여성스러움을 부각시켜 줌으로써 ‘이유리’ 캐릭터를 완성하였다.

마직막 캐릭터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인물로 묘사된 ‘성은교’이다. 벨리 댄스 학원 원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컬러가 강하지 않은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때 차갑고 이성적인 그녀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눈매의 부각시켜줄 수 있는 아이라인을 설정하였다.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커트 선이 보이는 보브 커트로 연출하였으며 남편 ‘서종철’ 보다 8살 많다는 설정을 보여주기 위해 흰 머리 설정을 하였지만 희끗 희끗 보이는 흰머리마저도 그녀의 차가운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가닥가닥 흰 칠을 하였다. 무늬가 뚜렷하고 디자인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의상 또한 그녀의 성격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미쓰 홍당무’를 분석한 결과 각 캐릭터마다의 성격을 외형적인 요소인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의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정확한 성격분석을 통해 실제로 볼 수 있고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캐릭터를 완성했다는 결론을 유추해 낼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화 ‘씨니’와 ‘미녀는 괴로워’ 속 주인공 여성캐릭터들을

분석하였으며 나온 결과를 표로 제시하였다. 영화 ‘써니’에서는 대조적인 성격을 볼 수 있는 ‘임나미와 하춘화’라는 캐릭터를 과거와 현재의 장면으로 이뤄지는 영화적 흐름 특성상 각 캐릭터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여성스럽고 부드러우면서도 소심한 듯하면서 당당한 임나미를 과거에는 뱅 스타일의 단발머리, 엘로우와 그린 등의 밝고 안정적인 컬러가 주로 사용된 의상을 착용하고 깨끗한 피부표현의 메이크업을 하였다면 터프하고 리더십강한 하춘화의 과거는 앞부분만 살짝 올려 세팅 한 닭 벼슬 머리로 연출하고 블랙과 화이트 등의 대조적인 컬러를 사용한 의상을 착용하고 뾰족한 셔츠 칼라의 것을 세우는 설정을 하였고 메이크업은 고등학생이라는 설정 상 임나미와 동일하게 피부표현의 메이크업을 하였다. 현재로 와서 임나미는 여성스럽고 차분한 이미지를 리본 같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블라우스와 카디건, H라인의 스커트 등을 주로 착용함으로써 보여 주었고 굵은 웨이브가 들어간 헤어스타일을 기본으로 상황에 따라 다른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메이크업 역시 부드러운 연한 핑크 톤을 주요 컬러로 사용하여 여성스러움을 더 해 주었다. 반면 하춘화는 사업에 성공하여 재력을 가졌지만 폐암 말기로 시한부 삶을 살며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환자로 인물의 설정상 주로 환자복을 입고 있으나 그 위에 채도가 낮은 컬러의 카디건을 걸쳐 줌으로써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물의 어두운 내면의 성격을 엿 볼 수 있었으며 항암치료에 의해 오는 탈모증상 등을 영화적인 요인으로 주지 않았으며 과거와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과거의 단발머리와 같은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였으며 환자라는 설정 상 맨 얼굴에 가까운 내추럴 한 메이크업을 통해 캐릭터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영화‘써니’의 두 캐릭터를 통해 내면적으로 대조적인 성격이 외형적으로 표현되는 사례를 통해 각 각의 요소마다 차이를 둘으로써 캐릭터를 표현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유추해 낼 수 있었으며 상황설정과 영화적 흐름을 위해 현실적인 리얼리티를 배제하고 영화적 리얼리티로 상황을 부여함으로써 캐릭터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결과도 유추해 낼 수 있었다.

세 번째 영화‘미녀는 괴로워’의 강한나 캐릭터는 거구의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인물이 성형수술을 통해 완벽한 미녀로 변신하게 되면서 사랑을 얻

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외모보다는 내면의 진실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인물로 등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강한나의 성형 전과 성형 후를 크게 나눠서 분석하였으며 성형 전 상황에서도 평상시 모습과 립싱크 가수로써 모습을 나눠서 비교 분석하였다. 평상시에는 메이크업을 전혀 하지 않은 듯한 얼굴과 몇 일째 감지 않은 듯한 헤어스타일, 청바지에 캐릭터 그림의 티셔츠 등을 착용하고 나와서 비 호감의 거구의 느낌만을 주었다면 자신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가수로써 강한나 일 때는 아이섀도와 마스카라, 립글로스 등으로 프로다운 느낌을 연출하고자 하는 캐릭터의 심리를 보여주었고 집게 편, 구슬이 달린 편 등으로 헤어스타일에도 잔뜩 멋을 부리고, 하늘거리는 소재의 블라우스와 화려하게 수놓아진 청바지 등을 착용함으로써 평상시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가수로써의 강한나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성형 수술을 하고난 후에는 가수 데뷔 하기전과 가수 데뷔 후로 나눠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가수 데뷔 전에는 과거와 연결하기 위한 부스스한 헤어스타일에 민낯 같은 메이크업을 통해서 외형적인 요소를 표현하였고 간호사복을 몰래 훔쳐 입고 나가서 자신이 입고 싶어 하던 원피스를 바꿔 입는 등 성형 직후라 달라진 자신의 외모를 ‘사람들이 알아볼까’ 하는 약간 눈치 보는 듯한 모습으로 아직은 조심스럽게 사람들 속에 섞이는 강한나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런 모습에서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주고 성형한 사실을 친구마저도 알아보질 못하자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런 캐릭터의 심경변화를 가수 데뷔 후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주었다.

볼 터치, 아이섀도, 립 컬러 등 메이크업에서도 전체적으로 컬러 설정을 하였고 헤어스타일도 굵은 웨이브를 기본스타일로 다양한 스타일들을 연출하였으며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의상을 착용하는 등의 변화에서 주인공 강한나가 달라진 외모에 자신감을 얻게 된 심리변화를 알 수 있었다. 외모적으로 달라진 강한나를 통해 심리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외형적인 요소인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렇듯 영화 속 캐릭터의 심리 변화나 상황에 따른 감정 하나하나가 캐

릭터 표현의 외형적 요소인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에서 세밀하게 표현이 되고 캐릭터와 잘 접목되었을 때 관객들은 스크린을 통해 캐릭터를 접했을 때 캐릭터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으며 영화 흐름에 대한 집중도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외형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담당하는 팀들은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정확한 캐릭터 분석을 통해 세밀하게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도서-

- 김용규, 『조명연출(방송, 영화, 공연 예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2
- 김유선, 『영화 의상과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9
- 김이석 외 1명, 『영화와 사회』, 한나래, 2012
- 이영일, 『한국영화전사-개정증보판』, 서울 소도, 2004
- 지명석, 『영화예술의 이해』, 집문당, 2009
- 홍수경 외, 『분장기술』, 도서출판 예림, 2007
- 황현규, 『황현규의 분장이야기』, 넥서스, 2000
- A. 루이스자네티, 박만준 외 1명 역, 『영화의 이해』, 케이북스, 2012
- B. Robert Stam, 김병철 역, 『영화이론』, 케이북스, 2012

### -학위논문-

- 김명, 《영화에 나타나는 성격장애 주인공의 캐릭터 이미지 분석에 관한 연구 : B군 성격장애의 분장요소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서영, 《사극영화의 캐릭터에 따른 분장 사례 연구 : 영화 「쌍화점」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김세희, 《배창호 영화의 캐릭터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윤미, 《영화 포스터 이미지에 따른 캐릭터 이미지 지각》, 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정희, 《영화의상과 메이크업·헤어분석을 통한 캐릭터 이미지비교 : 오드리헵번과 마릴린 먼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태환, 《영화의 구성요소가 배우에게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6

- 김해영, 《얼굴 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형태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헤어 커트 스타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선영, 《한국 코미디 영화 형성 과정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박윤심, 《1950년대 영화의상과 메이크업 분석에 관한 연구 : 할리우드 영화스타들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방혜련, 《영화감독 박찬욱의 작품 속 캐릭터별 스타일 분석》, 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서곡숙, 《1960년대 후반기 한국 변장코미디 영화의 대중성 연구 : 변장 모티브를 통한 내러티브 전략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서현숙, 《한국 스릴러 영화에서 표현된 캐릭터 분장 요소 분석》, 경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오은실, 《한국영화에 나타난 희극성 연구 --사회상의 반영에 따른 특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유혜정, 《영화 캐릭터에 표현된 패션이미지 연구 : 메릴 스트립의 영화 속 캐릭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순혜, 《한국영화 원작과 미국 리메이크 영화에 나타난 재현 비교연구 : 「장화, 홍련」 「안나와알렉스 : 두 자매 이야기」 중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이주연, 《1954년과 1995년의 영화 「사브리나」에서 나타난 토클 코디네이션의 의상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에 관한 비교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현주, 《특수 분장이 적용된 캐릭터 개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혜진, 《영화장르에 따른 배우 캐릭터 이미지 분석 : 조니뎁이 출연한 영화를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화영, 《영화의상과 표현성에 관한 연구 :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

다」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임세은, 『영화 「엑스맨」 캐릭터 분장 요소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장현숙, 『영화 「황진이」로 본 조선시대 기생분장에 관한 연구』: 2007년  
장윤현 감독의 「황진이」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정미영, 『영화 「춘향전」의 '춘향'캐릭터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2  
조 마리아, 『한·중·일 전통 극에 나타난 분장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성  
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조미영, 『춘향전 등장인물의 성격분석을 통한 분장적용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학술지-

박민영 외 1명, 『베트맨과 다크나이트 영화 속의 악당 '조커'의 분장요소  
비교연구』, 『한국 메이크업 디자인 학회지』 4(3), 한국 메이크업 디  
자인 학회, 2008, p205  
강은미, 『영화 속 캐릭터 특징에 따른 스타일 요소 연구: 영화배우 송강  
호, 설경구가 출연한 작품을 중심으로』, 『복식문화 학회지』 18(2), 복  
식문화학회, 2010, p293

#### -기타-

영화 '미쓰 홍당무' 시나리오  
영화 '씨니' 시나리오  
영화 '미녀는 괴로워' 시나리오  
이영일, 한국영화주조사, 영화진흥공사, 1988  
[www.naver.com](http://www.naver.com)

## ABSTRACT

###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comedy film Women in character

-The movie miss blush-

Lee, Jung Hee

Major in Make-up Art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world in which we live is becoming more and more dominated by visual imagery. Visual Images have been important and expressions of visual image have been diversified by adding visual communication. The movies which have been realized much to popularize visual arts by cinematic simulator informed the various characters to all the people. And the movie is the synthetic finished product of visual arts that conveyed by visual image.

Make up, Hairstyle and Costume become very various to visualize the important character that it plays a crucial role and it leads the flow of the story in the movie. The expressions of characters by makeup, hairstyle and costume give body to sociocultural background, personality, career, economic environment, period and age.

In addition, fantastic screen by the limitless imaginative power is provided with technical advances with the evolution of film industry.

Therefore, I wanted to study the cases on the female characters in Korean romantic comedies. So, I took in the whole comic feature in the genre of Korean movies and variety of factors to express characters in movies. By then, through the movies which the female took a leading role, I analyzed character expressions by factors on external.

Through the film "Miss Hong Dang Moo" which I took part in direct makeup, I analyzed important female characters. By comparing the film "Sunny" with "Pounds Beauty", I analyzed how factors on external works to express characters.

My study is based on the basic premise that factors on external in movies are makeup, hairstyle and costume. I studied how character's completion comes true by 3-factors and how 3-factors are exposed in each film.

As a result I have come to this conclusion.

In first film "Miss Hong Dang Moo" gave body to various characters and enhance the public's concentration level through exact personality analysis in universal and apprehensible range by describing in detail from each field.

In second film "Sunny", through relative personalities of two main characters contrasting characters internally by making a difference in each factors, characters are exposed and by disclosing a down-to-earth reality and by giving dramatic reality to situation drama characters are completed.

Last, through the heroine-Kang Han na, during her appearance is changing her mentality also changes. With external factors-makeup, hairstyle and costume , the film "Pound Beauty" described this series of changes excellently.

